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6 1981년11월1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November 1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NOV 12 1981
EAST ASIAN LIBR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美洲 北傀間諜검거

한국國家安全기획부 LA거주 홍선길, 在日 유학생등 9명

◇… 〈서울본사전화〉 국가안전기획부는 6일 북괴공작원에 포섭돼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 간첩활동을 하던 LA거주 재미동포 홍선길(50)과 재일동포 유학생 진의식(23), 기술연수자 김장길(39)등을 중심으로한 국내간첩망 일당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

서울에 머물면서 연고자들에 入北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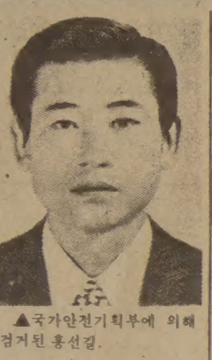
수사기관은 검거된 간첩망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 거점을 둔 북괴해외공작망과 연결되어 우회침투한 간첩들로 국내연고자들을 포섭, 해외여행 이민주선등의 방법으로 입북을 유인하거나 학원 소요등의 배후조종 사회불안을 획책했고 군사기밀탐지 산업정보수집등 다양한 활동을 한것으로 밝혔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선길은 평북 신의주출생으로 1.4후퇴 당시 월남,서울 부산 등을 전전 기계기술공으로 일해왔으며 77년12월 취업이민으로 도미, 재미교포간첩 골장(43·한국명 장경환)에 포섭됐다.

홍은 지난6월13일 재미교포 고종구 김성락등과 같이 몰·장의 안내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도착, 그곳 주재 북괴공관요원 김모등의 안내로 프라하, 모스크바를 경유, 평양에 도착 김일성주체사상 북괴의 사회제도선전과 함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당위성등의 정치사상교양을 받았다.

홍은 또한 재미교포중 입북대상자를 찾아 대동입북하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거된 홍선길.

고 또 남한에 동조자를 물색 도미시켜 입북케기를 조종하는 한편 모든 정세를 수집하라는 등의 지령과 함께 왕복여비, 공작금조로 미화 1천5백달러를 받고 미국에 돌아왔다.

홍은 지난7월13일 가족방문을 구실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거주하는 외사촌누이 장옥렬씨의 집에 체류하면서 친형 홍명길, 동길및동서인 한명섭, 고향친구 백낙구등에 접근 입북당시 받은 가족사진과 안부를 전하며 북괴의 우월성을 찬양했다.

또 지령에 의해 국내친구인 백낙구를 대동 입북목적으로 백의 부인 최종만과 위장결혼 했으며 국내사정의 탐지및 수집등의 간첩활동을 벌여왔다고 국가안전기획부는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인도네시아에 기술자로 근무하던 당시의 홍선길(왼쪽)

인도차이나 난민 감축

액쉬디 해명 베트남서 직접이민

캐나다는 인도차이나난민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액쉬디 이민장관은 3일 말했다.

액쉬디장관은 지난주 내년도에 동남아시아지역에서 4천명의 난민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차이나인들을 이 숫자외에도직접 베트남에서 데려오는 유엔프로그램에 의한 숫자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액쉬디장관은 덧붙였다.

동남아시아 각지의 난민수용소로부터 받아들이는 수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올해 동유럽에서는 1천명의 난민이 캐나다에 들어왔다. 이숫자는 최근 동구의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내년 6천명으로 불어난다.

액쉬디는 폴랜드 난민을 많이 받기위해 인도차이나 난민의 쿼타가 줄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 ⑤

홍콩행이 서울행보다 싸

교포시장좁아 교포부담 커

항공요금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보다 시장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CP항공의 뉴욕—서울구간(미화 950달러)은 토론토—서울(1380달러)보다 분명히 거리가 더 머나 요금은 200~300달러가 싸다. 뉴욕시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KAL노선의 토론토—홍콩간은 토론토—서울간보다 서울—홍콩 거리만큼 더 멀지만 요금은 같거나 약간 싸다(왕복)

따라서 토론토—홍콩티켓을 가지고 서울까지가는 교포는 덤으로 홍콩여행도 즐길수 있다.

KAL이나 여행사들은 이 특전은 한국교포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중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한다.

왜? 그들의 시장은 한국교민시장보다 방대하고 홍콩행은 싱가폴, 중국항공사 필리핀항공사등과의 승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KAL은 전호(11월3일자)에서 언급한대로 교포들의 「홍콩행」구입을 막기위해 여행사가 티켓을발행할때 반드시 여행자의풀·네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름만 봐도 한국인이 분명한 사람이 홍콩행의이득을 이용하려다가는 KAL의 압력을받은 여행사측의 거절을 받는다.

KAL이 중국사람들에게 표를 싸게 팔수있다면 왜 우리교포에게는 더 싸게해주지 못하고 더 비싸게 받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홍콩까지의 거리가 서울보다 더 멀지만 중국여행자가 교포들보다 많으니까 홍콩행은 싸게팔아도 손해가 없는대신 서울가는 여행자는 적으니까 따라서원가를 빼기 위해서라도 서울행 손님에게는 비싸게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는것은 항공요금 산출방식에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포들의 무지를 이용한 차별대우라할 것이다.

홍콩행표가 더 싼줄 알았다면 중국인과 성이나이름이 비슷한 많은 교포들은 모처럼의 모국 나들이에 홍콩을 거쳐 오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KAL이나 CP 여행사들은 한번도 홍콩행이 서울행 요금보다 싸다(또는 같다)라는 사실을 선전하지 않았다. 구태어 밝히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토론토에 소재한 중국여행사들은 토론토—홍콩구간을 약1300달러 내외에서 판매, 한국계 여행사들의 토론토—서울 요금보다 약 30~60달러 싸다.

CP.Air역시 홍콩행단체요금할인혜택을 비중국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있어 많은 캐네디안 소비자들도 지금까지 이에 항의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FBI 僑胞 최두환씨를 체포

武裝강도 혐의, 지명수배중 호놀룰루서

加州법원의 住居제한명령 어기고 도주

〈하와이지사〉. 미연방수사국(FBI)은 5일 무장강도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캘리포니거주 교포 최두환씨(26)를 호놀룰루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윌럼·어빈수사관은 5일 하오 마키키지역에서 호놀룰루경찰의 지원하에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10월2일 무장강도혐의로 기소돼 캘리포니아법원으로부터 주거제한명령을 받은후 도주해 지명수배중이었다고 FBI호놀룰루사무실은 밝혔다.

한편 토마스·영연방치안판사는 5일 하오 늦게 최에 대한 보석금을 15만달러로 책정했으며 오는 13일 첫청문을 열것을 결정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캐라반행사 세부지침 확정

82미스코리아 예선 4.17또는 24일

지난 10월 7일 구성된 한인회 캐라반운영위원회는(위원장 이대환)는 82년 한인캐라반 행사 계획서를 메트로 캐라반 커미티에 제출하고, 5일 한인회관에서 그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캐라반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이민집단들이 각나라별로 자기나라 수도의 이름을 따서 그 나라 민속의상 공예, 예술, 무역품등을 소개한다.

우리교민들은 「서울관」이란 이름 아래 참가하며 서울시장에는 함병섭씨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캐라반 행사에서 「서울관」의 안내역을 맡을 교포미인 선발을 위한 미인대회 일정도 짰다.

서울 한국일보 본사가 주최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캐나다 예선을 겸한 이번 미인대회는 82년 4월17일 또는 24일에 개최하게 된다.

이번 캐라반 행사의 각 부서와 책임자의 추가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지 10월 10일자 참조)

서울시장 : 함병섭.
부시장 : 이병권
예산 : 명노길, 오기환
행정 : 심재환, 장순채, 조한철
경비 : 송기선, 하주용
안내 : 서만수, 최남축
입장권판매 : 변의섭, 고순복, 장영채
홍보 : 김명규, 구본모
사진 : 이올윤
식당 : 조영호, 김옥자, 김혜숙, 최동호

광고문의
533·2361

코발리스 交通慘事 또한명 死亡

입원치료 받던 오영주씨 끝내 숨져

희생자 모두 6명, 합동장례식 거행

지난2일 오레곤주 코발리스근처서 발생한 교통참사로 병원에 입원, 생명이 위독했던 오영주씨(35)는 5일 오후 굳·사마리탄병원서 숨져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불어났다.

한편 오레곤한인사회는 5일 하오1시 코발리스에 있는 한인교회(목사·이태근)에서 오영주씨를 제외한 사망자 5명에 대한 합동장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레곤주 각지역에서 참례한 교포조객 약4백명이 참석해 평소 고인들의 컴뮤니티봉사에 대한 높은 뜻을 추모했다.

이날 장례식에서 장세덕씨(전TBC 아나운서)는 고인들을 위한 조사를 낭독했으며 강영자집사는 조가를 불렀다.

최동근씨등이 주선한 교포합동장례식이 끝난후 박예숙씨, 스테번스 명옥씨등은 천주교묘지에 안장됐으며 박정희씨, 김정수씨, 조영자씨등은 일반묘지에 안장됐다.

◇이번주 TV한국◇

—채널 47

11월12일(목) 낮12시30분~1시
11월13일(금) 밤11시~11시30분
11월16일(월) 낮1시~1시30분

◁프 로▷

기록영화(한국)
·전설의 고향(돈구름)
금주의 뉴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W. (한국관 앞)

社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강학수 종합보험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컴퓨터교육 오리엔테이숀

주제 : 1. 온타리오 각 대학의 컴퓨터교육
2. 컴퓨터 산업 현황과 취업전망
3. 컴퓨터 사용 시범실습

일시 : 1981년11월28일(토)오후2시30분부터6시30분까지

장소 : 252 BLOOR ST. WEST, TOR (온타리오 교육회관 2층)

일반교민과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문의 : 245-0995(김영수)
275-5683(한혜식 회장)

후원 : 토론토한인회

주최 : 한인컴퓨터회 (COSKA)

알 림

전문직 진출에 뜻을 둔 후배 학생들을 위해 각 분야의 선배들이 그 직종의 실태를 소개하고 구비요건, 교육과정과 제도를 활용하는 요령등 자세한 안내를 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마련 했아오니 대학생,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 방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제 : 대학교육및 전문직종 안내
University Education and Professional Career Guidance

강연 : 온타리오 대학과 장학제도
Mr. Allan Hill(토론토대학 학생처 부처장)

토의 : 사회 : 조성준(사회사업가)

1. 인문분과 사회 : 조성준(사회사업가)
위원 : 강찬영(변호사) 송민자(고교교사) 김지일(심리학자) 심상수(계리사) 김영주(계리사) 조병선(경영관리사) 오준상(경영관리사) 김상용(경제학자) 공영희(상업미술가) 홍순관(목사) 대학생대표

2. 과학기술분과 사회 : 신복균(물리학자)
위원 : 윤광석(콤퓨터 시스템 아날리스트) 이태영(콤퓨터시스템 아날리스트) 김종상(동력공학자) 이창회(금속공학자) 윤승렬(화학공학자) 정대해(원자핵 공학자) 최태호(수학자) 민영서(건축가) 주병돈(보험 계리사) 천명호(토론토대 화공과 학생)

3. 의학분과 사회 : 구상회(소아과 전문의)
위원 : 이은숙(알러지, 소아과 전문의) 이영일(치과의) 한장환(약사) 김동근(병리사) 문가자(간호원) 조한철(수의) 김철(생물학자) 대학생대표

때 : 1981년11월21일(토) 오전10시~오후4시(점심제공)
곳 : 토론토 시 교육위원회 6층 강당
155 College St. (University Ave. 서쪽) 주차는 McCaul St. 주차건물 이용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재미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협조 : 온타리오주 한인 대학생 협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1981년11월2일

한인 교육 연구회 회장 조 성 준
재미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온태리오 지부장 신 복 균

교육자 청빙공고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에서는(캐나다 장로교 소속교회임) 사명감이 두터우시고, 헌신적으로 목회하실 목사님을 모시고자하오니 뜻이 있으신 목사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1. 자격 ● 신학대학을 졸업 하시고 목사안수를받으신 분으로 목회경험 3년이상 되신분
●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인정 받으실수 있는분.
● 년령 45세 전후
2. 대우 ● 캐나다 장로교 기본에 준함.
3.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및 영어)
● 목회소견서 1통
● 명함판 사진 1매
● 설교녹음 카셑트가 가능하면 함께 우송바람
4. 연락처 ●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54 QUEEN ST. NORTH
KITCHENER ONT N2H 2H2

※그외 자세한 내용은 전화 : (519) 576-4926 (김진욱 장로)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직업및 진학안내 세미나

인문, 과학, 의학 분야별 토의 강연

진학을 앞둔 고교생이나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직업정보 및 진학안내세미나가 개최된다.

토론토 한인교육연구회(회장 : 조성준)와 재미한국과학기술자 협회 온타리오지부(지부장 : 신복균)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 토론토시교육위원회 6층강당에서 열린다.

상오 10시부터는 토론토대학 교무처 입학담당자 알란·힐씨의 "온타리오대학의 진학과 장학금 안내"란 강연이 있고 하오에는 인문 과학, 의학계열로 나누어 각계의 한인전문직업인과 학생들이 토론을 벌이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도 받는다.

이번 세미나에서 과학분과 사회를 맡게 되는 요크대학교수 신복균 박사는 "진학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 대학의 과선택 요령등이 소개될 것"이라면서 특히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올바른 진학지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민들에게는 생소한 보험계리사(주병돈), 경영관리사(조병선 오준상)등의 직업들이 소개된다.

이날 소개될 분야별 연사들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분과(사회 조성준)

위원 : 강찬영(변호사) 송민자(고교교사) 김지일(심리학자) 심상수(계리사) 김영주(계리사) 조병선(경영관리사) 오준상(경영관리사) 김상용(경제학자) 공영희(상업미술가) 홍순관(목사).

2. 과학기술분과(사회 신복균 물리학자)

위원 : 윤광석(콤퓨터시스템 아날리스트) 이태영(") 김종상(동력공학자) 이창회(금속공학자) 윤승렬(화학공학자) 정대해(원자핵공학자) 최태호(수학자) 민영서(건축가) 주병돈(보험계리사). 천명호(토론토대 화공과 학생).

3. 의학분과(사회 구성회 소아과 전문의)

위원 : 이은숙(알러지 소아과의사), 이영일(치과의사) 한장환(약사) 김동근(병리사) 문가자(간호원). 조한철(수의사) 김철(생물학자).

다이아나 임신

결혼 3개월만에

(영국·런던) 82년 6월에는 황태자비 다이아나가찰스 황태자의 뒤를 이어 영국왕실 계통을 잇게될 황태자 또는 공주를 낳게 될 것이다.

오는 14일로 33세 생일을 맞는 찰스 황태자는 방년 20세의 스펜서공의 딸 다이아나와 결혼한지 3개월만에 회소식을 갖게됐다고 5일 버킹햄궁이발표했다.

버킹햄궁은 임신한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건강은 아주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도박사들은 찰스의 아기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두고 내기를 하고 있으나 아들쪽이 약간 유리하다. 또한 50 : 1의 찬스로 쌍둥이쪽에 도박이 걸려있다.

드브렛출판사의 휴·페스켓씨는 쌍둥이일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말했다. 황태자비의 할아버지와 증조부도 쌍둥이였다는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황태자비의 계모인 소설가 바바라·카틀랜드 여사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영국인들은 아들을 원하나, 미국인들은 딸을 더 좋아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원한 영국하원도 황태자비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영국의 다이안공주가 27일 찰스 황태자와 함께 결혼후 처음으로 웨일즈를 방문, 어린이들로부터 황색장미와 그녀를 위해 쓴 시 한편을 손에 들고 담소하고 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집비우고 여행 떠날 때의 도둑대비책

신문등 배달중지시켜 집앞에 쌓이지 않도록
부재중에 잔디깎게 미리 연락해 두는 것도 방법
창문 잠그는 것만으론 부족, 못을 쳐야 안전

주택가에는 빈집을노리는 도둑들이 길목 곳곳에 지켜서 있다.

이런 도둑들의 눈을피해 안전하게 휴가나 여행을다녀오는 방법은 없을까?

도둑들은 대개 이웃집에 찾아와 옆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며, 길게자란 잔디, 집앞에 쌓여있는 신문, 우체통에 가득담긴 광고지 잡지, 편지등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우선 신문배달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우편배달도 일시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가드너와 잔디깎는 날짜를 약속해 놓고, 가끔 이웃집의 차를 자기집 앞길에 주차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것도 좋다.

밤에는 집에 사람이 있는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동시간 조절기를 사용 현관, 차고등을 밝게 해 두는 것은 도둑을 방지하는 가장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도둑이 쉽게 넘나들수있는 차고문은 자물쇠로 채워 사다리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수 없게 한다.

손잡이를 이용해서 창문을 잠그는 장치는 보통 도둑들도 쉽게 열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는 상태에서 모서리에 못을박아 문이열리지 않도록 한다. 이 방법은 돈도 안들고 안전율은 100%이다.

미닫이식으로된 유리문에는 문틀에 긴 막대를 놓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현관문이나 침실등 각방의 문의 자물쇠 장치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고장난것이 있으면 바꿔낀다. 자물쇠는 놋쇠, 구리, 스테인레스 제품이 튼튼하며 이중자물쇠장치가 돼 있는것이 안전하다.

현관문의 자물쇠는 안이나 밖에서 열쇠로 여는것이 더욱 안전하다.

도난방지 비상벨은 효과적이지만 이를 구입할때는 신용있는 회사와 상의, 위치와 설비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둑방지에 필요한 상식은 다음과 같다.

△여행가기전 동네 경찰서에 연락하고 비상시 자기집 열쇠를 가질 수 있는방법을 알려준다.

△집열쇠를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지갑, 핸드백에따로따로 보관한다.

△중요한 물건들에 고유번호를 기입해 표시를 한다.

△여러사람에게 여행중임을 알리지 않는다.

△열쇠는 꼭 이웃집에 맡긴다.

△이웃집에 휴가동안 자기집의 화초에 물을 주도록 부탁할 경우 매번 다른 부분을 주도록 부탁한다.

△귀중품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이웃집에 수상한 자가기웃거리면 경찰에 연락한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DON'T GIVE A DAMN

Melanie가 마지막 will(유언)로 Scarlett (Vivien Leigh분)에게 Ashley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들은 Rhett (Clark Gable분)은 회의를 느낀나머지 Scarlett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뒤늦게 진정으로 자신이 Rhett을 사랑하고 있다는것을 깨달은 Scarlett이 남편인 Rhett이 떠나지 못하도록 애원하는 대목―。

Rhett. If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렛, 당신이 떠나가면 전 어떻게해요?) Rhett이 Scarlett에게 말한다。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솔직이 말해서 당신이 어떻게하건 내가 알바 아니오) 라고 하면서 떠난다。

이상은 아카데미 10개부문을 수상한 불후의 명작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마지막 장면。

damn이라는 단어는 당시 미국영화계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된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상회화에 자주쓰이는 미국 영어다。

I don't give a damn.이란 I don't care. (상관치 않다), I'm not concerned. (관심이 없다)와 같은 뜻을 가진 slang(속어)。 점잖은 자리가 아닌 work(직장)에서나 「친한 친구끼리 거리낌없이 하는 표현」인 informal expression이다。

trouble maker(말썽꾸러기) 아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화가난 아버지가 I don,t give a damn.이라고말했다면 「그녀석이어찌되든 내 알바아니다」는 의미로 한 말。 공부를 하게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말을듣지 않는 동생에게 역시 화가난 형이 I don't give a damn whether you study or not. 라고 한것도 「네가 공부하건 안하건 더이상 상관않겠다」는 말이 된다。

다음은 Gone with the wind. 의 마지막 장면을 옮겨적은것이다。

—Rhett. Where are you going?
—Going to Charleston. Back to where I belong.
—Please take me with you.
—No, I'm through with everything here.
I want peac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No, I only know that I love you.
—That's your misfortune.
—Rhett. If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be through with : ~이 끝나다。 예) Are you through with your meal? (식사를 끝냈읍니까?)
misfortune : 불운。
belong : 「비롱」이 아니고 「블롱」이라고 발음함。 예) belive 「블리브」, below 「블로」

"以北가지말라고 말렸다"

밸리에사는 홍선길夫人 本報와 인터뷰

떠나기 前날밤에 평양行 家族에 알려
「美國와서 모든것 잃어 버렸어요…」
부인 李씨 울먹이며 자세한 경위설명

(LA지사)

미국에 온것이 후회막심합니다. 우리가족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모든것을 잃어버렸어요'―홍선길의 부인 이경숙씨(가명)는 기자와 만나자 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들은 그이가 이북가는 준비를하고 있는것도 몰랐어요. 떠나기 전날밤에야 얘기하더군요. 가지말라고 말렸죠. 평양갔다오는것은 좋지 않다구요…』 남편(홍선길)은 「이북에 있는 누님을 만나러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며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LA근교 밸리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구속이 신문에 발표되기전 알았다고.

『가족들이 이북가는 것을 말렸을때 그이는 이해해달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렸어야 하는건데…』하며 이 여인은 흐느꼈다.

부인 이여인이 전한 남편 홍선길의 주변은 다음과 같다.

평북신의주 출생인 홍은 1.4후퇴당시 남한에 넘어와 부산 서울등지에서 기계공으로 일한후 서울 상계동에 거주하며 마장동에서 용접, 선반등을 하는 철공소를 경영했다.

이러다가 10년전인 72년도 인도네시아에 해외기술자 파견으로 건너갔다. 홍은 인도네시아에서 1년동안 근무후 돌아와 가족들에게 힘든곳이라며 2년동안 서울에 체류후 다시 기술자로 인도네시아에 갔다.

이후 홍은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관광비자를 받고 15일간 한국에 머무른후 단신으로 지난 77년 12월23일 미국에 건너왔다.

버뱅크소재 NUCLEAR VALVE DIVISION BORG AND WARNER COMPANY의 ENERGY EQUIPMENT 기술공으로 시간당 9달러를 받고 일했다

지난 6월13일 홍이 북한으로 출발하기전날밤 홍은 가족들에게 「이북에 누님을 만나러 간다. 롱·장 고종구 김성락목사와 나 이렇게 넷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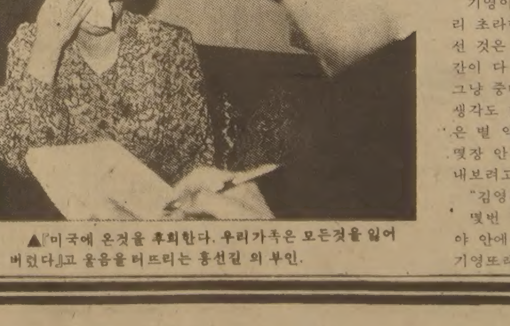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6월13일) 홍은 북한길에 올랐다. 미국에 돌아온것은 7월9일.

속내의 2벌, 양말, 남방등의 간단한 행장으로 이북에 갔던 홍은 돌아올때 누님의 흑백사진1장과 인삼주1병, 담배2보루등을 들고왔으며 직장에서는 장기결근으로 쫓겨났다.

홍은 이내 한국에 가야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한후 돌아온 이틀만인 지난 7월11일 서울에갔다.

이유는 이북의 소식과 서울집을 팔아가지고 오겠다는것.

LA지역 FBI의 마크·머[illegible]수사관도 지난 10월초와 5일 하오4시께 두차례에 걸쳐 홍의 집을 방문「이북에 누구와 같이갔느냐, 왜갔었으며 서울에는 또 무슨이유로 갔느냐」고 가족들에게 질문했다고한다.



▲『미국에 온것을 후회한다. 우리가족은 모든것을 잃어버렸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홍선길 의 부인.

걸작만화

『의사선생님은 당신이 바깥에 나갈 일광욕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Doctor thinks you might not quite be ready for the sun-deck yet."

<단편> 모래성 ④

박성민 (문협회원)

기영은 쭈그러진 주전자를 들어 빈 술잔을 채웠다. 그리곤 서둘러 술잔을 비웠다. 그는 조금 전까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일들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생각을 해봐야 짜증만 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넘어 생활하는 동안 기영은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기영은 20장이 넘는 소집장을 다시 한번 세어보았다.

기영은 남은 술을 서둘러 마시고 대포집을 나왔다. 그가 그렇게 서두른 것은 고참들의 기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통지를 못받고 이번 기회마저 놓침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될지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번 훈련마저 불참한다는 것은 또한 그가 싫어하는 중대장이나 고참들에게,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진 그 윗사람에게 좋은 건수를 만들어주는 일이었기에 기영은 더욱 서둘렀다.

기영이 산꼭대기의 유달리 초라한 판자대문 앞에 선 것은 거의 그의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였다. 그는 그냥 중대본부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으나 오늘저녁은 별 약속도 없었으므로 몇장 안남은 것을 마저 끝내보려고 나선 것이다.

"김영훈씨 계십니까?"

몇번 더 소리를 질러서야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기영또래의 여자였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자가 지금쯤 집에 있다면 아마 밤일을 나가는 여자일 거라고 기영은 생각했다.

"이집에 김영훈이란 사람 있읍니까?"

"네, 저희 오빠데…"

"지금 집에 있읍니까?"

"없는데요."

"그럼 아무 도장이나 여기 눌러 주세요. 예비군훈련 소집장입니다. 이번 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꼭 참가해야 합니다."

기영은 자신의 근무시간도 이미 지나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일을 끝내려고 하였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전하고, 누구의 도장이라도 받아내면 그로서는 책임이 완수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도장을 가지고 나오는 여자는 기영에게 물었다.

"저, 이번에는 꼭 참가해야 합니까?"

너무 어이없는 질문에 기영은 짜증 비슷하게 대꾸하였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금년 들어 한번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몸에 배인 약간의 협박조로 말하였다.

"이번에도 참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으로 소집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받게 될 겁니다."

순간 여자는 아주 당황하였다.

"사실 저희 오빠 집을 나간지 벌써 서너달이 돼요…"

그녀는 그러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때서야 기영은 그 여자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기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짝꿍이었다. 국민학교적 같은 동네에 살고, 그리고 같이 국민학교에 다니던 짝꿍이었다. 기영이 놀란 사실은 어렸을 적 친구를 이런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바로 짝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장소에서, 즉 이런 동네에서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방안에서 불규칙적인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 가래가 끓는 소리가 멈추자, 이내 쉰 목소리가 따라 들렸다.

"현정아! 누가 왔니?"

기영은 그녀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자신 앞에 서있는 여자가 분명한 짝꿍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김현정!" 기영은 얼마나 그녀의 이름을 쓰고 또 지웠던가! 새로이 일기장을 샀을 때, 또는 만년필을 샀을 때 그는 누구의 이름보다도, 또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그녀의 이름을 적어보곤 했었다.

옛날 기영이 살던 동네 입구에 아주 커다란 집이 있었다. 애초 동네꼬마들은 그집을 "큰집" 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집이 컸으며, 그집에는 감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철따라 라일락꽃을 비롯한 많은 꽃들이 피었다 졌다. 그리고 그집 앞의 터가 제일 넓었으므로 기영을 비롯한 동네꼬마들은 거기서 놀았다.

그집에는 옛날에 정치를 했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일하는 사람, 셋이 살았는데, 그들은 종종 꽃을 꺾으려고 담벽을 기어올라가는 애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꽃을 꺾어 주었고, 여름이면 미숫가루도 타 주었다. 그리고 담에 오르는 애들에게 위험하니 오르지 말고 꽃을 가지고 싶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다. 그 뒤 수염이 멋있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가을이면 집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불러서 곱게 익은 감도 따서 주었다.

동네애들에게는 그 할아버지네 집에 몇번 들어가 봤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 할아버지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가는 날 할아버지는 놀고 있던 애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셨다. 학교를 안다니는 나이의 어린애들은 "할아버지 이사가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기도 하였다.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고, 대신 짝꿍이네가 이사 왔다. "큰집"이라고 불리우던 그집이 "짝꿍이네집" 으로 바뀐 이유는 모든 동네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냈는데, 그집은 짝꿍이네가 이사온 이후로 동네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 오자마자 담을 고쳤다. 더 높이 담을 쌓았고, 가시철망을 담끝에다 달은 것이었다.

(계속)

FEDERAL BUDGET COMMENTARY

오는 11월12일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모든 카나다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귀하의 하시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81년도 예산안의 궁금증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고저 합니다.

COPY를 원하시면 11월13일부로 우송을해 드리고저 하오니 아래 주소나 전화로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 상 수 787—0155

Mintz and Partners
Chartered Accountants
56 Apex Road, Toronto, Ontario M6A 2V2

Affiliated Offices in principal cities throughout Canada.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落葉이 우수수 겨울을 재촉

겨울을 재촉하는 궂은비가 한차례씩 지나갈때마다 晩秋의 단풍잎들이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곤 한다。黃金색으로 타오르던 중앙청앞의 은행잎들도 週初에 내린비로 落葉이되어 길을 덮고 있다。
가정의 겨울준비도 그만큼 재촉을 받고있다。

캐나다여성 의식구조 급변

여성72% 가 남편, 집안일 돕길 원해

캐네디언은 지난 5년간 남편이 일반가정일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급격한 여론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갤럽여론조사가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응답자중 72%가 남편도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5년전에는 57%만이 이와같은 생각을 했었다.

17%의 응답자는 아내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필수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균 9%(남성11%·여성 7%)는 남편이 접시닦기, 청소등 집안일 돕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실제로 여성(67%)보다 더 많은 남성(73%)이 집안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 실제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76 년 집안 잡일을 정기적으로 돕는다는 남편은 44%로 현재의 47%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내의 눈으로 볼 때 76년 33%의 남편이 집안일을 정기적으로 도왔는데, 최근에는 37%로 증가했다.

이번 갤럽여론조사는 1,060가정을 대상으로 8월에 실시한 것이다.

폰테인씨 전자올갠 연주회

이튼센터에서 무료공개

오는 12일~14일(토) 3일간 다운타운의 이튼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전자올갠니스트 써지·폰테인씨의 연주회가 일반에게 무료공개된다.

가와이피아노및 토론토 올갠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연주회에서 사용될 올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올갠으로 시가 95,000달러이다.

B-1폭격기 불필요

CIA 보고 상원 청문회에

B-1 폭격기를 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국방성의 주장과는 달리 B-52 폭격기를 1990년까지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CIA가 보고했다.

상원 국방소분과위원회가 가진 청문회에서의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80년대 후반에 미국은 B-52 폭격기로 소련의 방공 체재를 뚫고 침투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B-1폭격기 1백대를 205억 달러에 제작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방소분과 위원장 테드 스티븐슨 상원의원은 CIA의 비밀보고를 자기가 접수했는데 1990년까지 B-52를 사용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스티븐슨 의원은 B-1폭격기 제작을 취소하고 바로 「스틸스」폭격기를 개발,레이더를 피하는 침투용 폭격기로 한단계 건너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⑨⓪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들중의 한사람이 대개는 형집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다. 그의 임무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미친 사람의 넋을 육신으로부터 풀어주어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형집행자는 그의 임무를 인간적으로 재빨리 해치운다.

왜냐하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생각은 이할미우트가 전혀 모르는것이기 때문이다. 임무가 끝나면 형집행자는 영혼의 법에 절을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용서를 빈다. 사건의 소식이 백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형제들이나 아버지, 아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맡았던 에스키모들이 백인들의 법에 투옥되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받 가는 결국 교수형으로 사라져갔다.

이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주석을 붙인 것과 같이 그의 국민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다. 내가 이책에서 바렌의 늙은 사만인 가꾸미에게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은 다른 이유들 때문이다"(주: 가꾸미라는 이름은 1958년에 죽은 포렐라라는 본명을 가졌던 사람의 필명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파괴적이고 타락한 이야기이며 그 국민의 이야기도 된다.

가꾸미의 이름은 이할미우트의 입에 저주와 같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은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짧았고,또 알수없는 공포에 질려 말을 제대로 하지못했다.

나의 의형제였던 오텍까지도 내가 가꾸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간청해야 비로소 입을 열었으나 그때마다 불안해 하곤했다.

자기자신 이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건방진 오호토까지도 여간해서 가꾸미에 대해 말을 안했으며 화제를 얼른 돌려 버렸다.

프란쯔는 이사람을 잘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그의 긴장과 불안을 알 수 있었다.

가꾸미는 많은 재주를 타고났고 또한 그는 백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다고 프란쯔는 말했다.

처음에 나는 이할미우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늙은 사람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대수롭게 여겼는데 점차로 호기심을 갖게되었다. 1948년 초여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가꾸미 쿠마닉(호수)에 있는 그의 두개나 되는 천막을 찾아가 볼려고 준비했다.

사실 준비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땅에 그렇게 큰 두려움을 조장시켰던 이 늙은 사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앤디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서 이미 우리들은 그의 영향력 밑에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우연히 윈더베이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 이상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가까이 와서 다른 에스키모들이 언제나 하는것처럼 노크하지도 않고 문옆에 서있어서 나는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그렇게 큰사람이 아니었지만 늙은 헥콰우보다 더 몸집이 육중했다.

그의 굵은 다리는 약간 굽어서 키높이 만큼이나 옆으로 퍼진 딱벌어진 그의 몸통을 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주의를 끈것은 그의 얼굴생김새였다.

나는 가꾸미의 얼굴을 도저히 잊어먹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이로오콰 족속이 그들의 귀신얼굴을 상징해서 나무에 새기는 것같은 당당하고 무서운 마스크를 생각한다. 가꾸미의 얼굴은 몇세기를 두고 풍우와 햇빛에 풍화 작용을 받고 쪼개진 것처럼 명인의 솜씨로 다듬어진 귀신의 마스크였다.

그것은 겨우 몇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시간동안 인간에 의해서 잊혀져 버린 것같은 인상이었다.

불규칙하게 나있는 두세개의 털무듬이 두툼한 아랫입술 밑으로 뾰죽히 튀어나온 염소같은 턱밑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큰 아랫입술은 밑으로 축 처져서 상하지 않은 앞으로 튀어나온 시커먼 이를 드러내고 있었으며,큰앞니는 화석에 새겨진 짐승의 턱뼈에 있는 이빨 처럼 크게 보였다. 몇개 안되는 수염이 콧물에 엉기어 윗입술에짝 달라붙어있었다. 그의 눈은 툭튀어나온 이마 밑으로 깊숙이 까만 대리석처럼 박혀있었고,팽팽한 눈꺼풀에 씌워졌는데 눈빛은 마치 컴컴한 동굴속의 거대한 거미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이마는 수천년동안 비바람에 수없이 갈라진 큰바위와 같았다.

이마위로는 야생마의 갈기처럼 희끗희끗한 머리가 심하게 엉클어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첫만남이었다. 가꾸미는 모든 교활한 수단을 다써서 앤디와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이간시키려고한 많은 사건들이 그뒤에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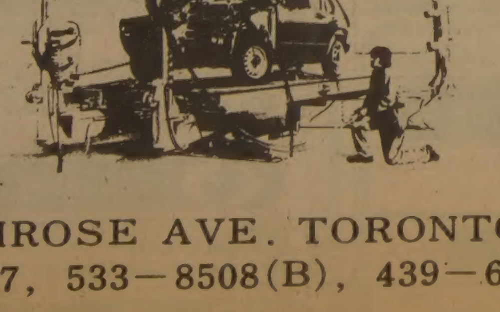
(계속)

가정의 벗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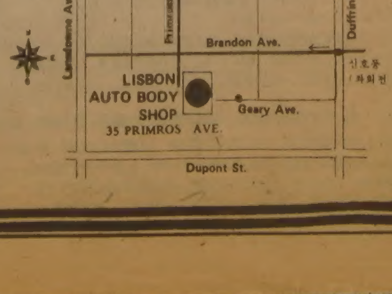
◇카나다 북쪽의 북극권에 살고있는 에스키모.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LTD.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RHEUMATISM 부인병.
물리치료.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색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어 헬퍼 급구
능력있는분 풀타임 우대함
☎ : 924-5155 Mr. 박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입주해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 : 533-9061 , 241-4384 Mrs. 임

접시닦기 구함
☎ : 960-9035

스포츠 웨어 공장에서 일할 경험있는 재봉사
모집(약간의 영어 요)
☎ : 746-0054 (FINCH & WESTON)

가게헬퍼 파-타임 구함 (오후5~11시까지)
QUEEN ST. E
☎ : 466-3995 Mr. LEE

성실한 분으로 도너스 샵 매내저를 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2-0634

집봐주실 할머니 원함(침식제공)
할아버지 한분만 지키고 계심.
☎ : 669-5084 Mrs. 최

맥스 밀크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성실한 캐쉬어 구함.
☎ : 633-523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경험있는 여자캐쉬어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261 SCARLETT RD.
☎ : 767-0762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경험있는 FULL TIME 남자헬퍼 구함.
☎ : 597-1115

주중오후(4~11시)에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합니다. (도너스 가게)
스카보로. ☎ : 284-9325 (Mrs. 남)

연령 관계없이 애들을 돌봅니다.
삼복식품옆 핀치지역
☎ : 745-4521 (미세스. 손)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8시~오후4시)
☎ : 531-2689

인형만드는 재봉사 구함
인형만드는 10명의 재봉사와
카터와 끝맺음 하시는분 구함
경험 있으신 분은 포맨(FOREMAN)으로씀
500 KEELE ST, UNIT 408
☎ : 762-7241

매매및 양도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스토아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함
☎ : 621-3412, 231-5351

밀튼에있는 버라이어티스토어 세일
좋은 수입과 위치
건강상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자함.
☎ : 878-5432(Mr . 프레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동양식 레스토랑을 하기위한 좋은기회
L. C. B. O. 라이센스 있음. $300,000이상. 번영하는
MUSKOKA에 있음. 그외 여러 좋은 장소에도 있음.
CLARENCE LABOSSIERE
☎ : 705-326-7468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사무실 투자 : 룸 리스
액설런트 TERMS
☎ : 675-3744, 249-5442

그로서리와 미트스토아
약 $1000.000. 두 아파트를 포함해서 잘설비되 있음
최적의 위치 HENRY ZWIERS에게 연락
☎ 705-326-4131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IA, ONT.
☎ 705-325-6193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1)빌딩(2층벽돌빌딩)
벽난로2개, 차고4개, 많은차가 주차할 수 있음. 파킹LOT
아스킹 : $210,000 제1모게지 : 62,000(10과2분의1%)
(2)벽돌 방갈로 하우스
5년(12%모게지)
벽돌난로, 3베드룸, 큰리빙룸, 다이닝룸, WORK SHOP
CALL DOVIS BURDA
☎ : 763-5555, 255-3038(CHOLKAN 복덕방)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UCK SHOP 매매(아파트밑에 있음)
☎ : 244-0966(아침9~12시, 저녁6~10시사이)

스토아 급매
주 3천불 매상
☎ : 278-5944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PE ONT. LTD. REALTOR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성업중인 레스토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ROYAL TRUST

극장및 3개의 가게가 달린 코너에 있는 부동산
매매(블루어 선상에 있음)
극장(580석), 모든장비.
면적(6,000스퀘어피트, 파킹장소 있음
써브웨이 부근.

보다 자세한 정보는
☎ : 532-3391, 924-0117 (KISHOR JANI)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룡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독신자 원함)
$180 PAPE서브웨이에서3분거리.
☎ : 466-3764, 282-0236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룡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구 혼

구 혼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초, 재혼을 불문코 성실한분을 찾고자 합니다.
재능을 갖추고 있음(특히 가게하실분)
☎ : 469-152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아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청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상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리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옹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카펫·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택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s남

SOME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ㄹ)全한新聞

公務員재산등록 83年부터

倫理法심의小委 합의 下旬께 修正案…會期中통과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심의 小委는 5일 하오 모임에서 주요爭點에 대해 의견을 조정했다.

全공무원對象…敎師등 제외
배우자·本人의 尊卑屬포함
政府原案대로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심의 6人小委(위원장 柳尙昊의원)는 5일하오 모임을갖고 그간 政府原案중에서 爭點이 되어온 ▲財産登錄의무자 ▲등록대상 재산범위 ▲審査기관등에 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柳위원장은 이날 6人小委회의가 끝난뒤 원칙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등록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재산범위는 본인、배우자및 本人의 直系尊卑屬으로 되어있는 정부 原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등록재산의 심사기관은 行政、立法、司法등 3府에 자율적인 심사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審査기구、3府 독자적構成 운영키로

그는 『이달하순께 小委의 修正案을 마무리하여 12월초 內務委·전체회의에보고、심의한뒤 이번정기국회 會期중에 처리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小委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시기는 附則에 삽입하되 오는83년부터 施行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으나 등록된財産의 公開여부는 확정하지못했다.

柳위원장이 발표한 公職者倫理法案의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의무자=전체공무원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任員으로하되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재산등록이 필요없는 공무원은 실시를 留保할 수 있다. ▲등록대상 재산범위=본인、배우자、본인의 直系尊卑屬 ▲등록재산 심사기관=행정、입법、사법、3府의 자율적인 심사기구를 둔다. ▲退職·免職공직자의 就業제한=국가공무원법등 他法과 상치되는 부분은 삭제한다.

이날 小委에서는 등록의무자에 있어서 정부原案과 長·次官級이상의 政務職으로 한다는 2가지案도 나왔으나 전체공무원을 대상범위로 잡고 大統領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下級공무원으로서 汚染度가 낮은職種(例국민교사)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한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 與黨의원들은 정부原案을、野黨의원들은 尊屬과 동거하지않는 직계卑屬을 제외한 동거하는 卑屬만으로할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정부原案을 擇하기로 합의했다.

심사기구는 3府의 자율적인 심사기구案외에 3府합동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자는案과 대통령직속으로 司正調査局을 두자는案도 제기됐으나、3府가 독자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어 취업승인과 재산등록심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데의견을 모았다. 또 공직자윤리법의 名稱도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法으로하자는案이있으나 정부案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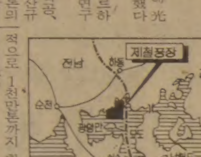
牙山灣은 産業기지 개발구역으로 再調整
金建設밝혀
제2製鐵건설 光陽灣확정
내년 整地착수 88년完工

정부는 5일 제2종합제철의 건설입지를 全南光陽郡前面으로 확정、발표했다. 제2제철입지는 그동안 光陽灣과 牙山灣이 경합되어왔으나 실수요자인 浦項製鐵측은 光陽灣을 주장해왔었다.

건설부는 이날 두지역에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장기적으로 光陽灣이 牙山灣보다 유리하고 ▲전체건설사업비는 光陽灣이 1조4천3백44억원、牙山灣은 1조4천1백65억원(港·都市港을 건설하면 1조3천2백7억원)으로 예상되어 비슷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安保문제와 ▲수도권의 비대화를 방지하는한편 ▲지역간의 균형발전을위해 光陽灣을 입지로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역조사는 프랑스의 르하브르港灣과 국토개발연구원이 했었다.

제2제철은 오는85년착공、88년완공할 예정인데 생산규모는 1단계로 年3백만톤의 철강생산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1천만톤까지 확충될 계획이다.



제2제철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건설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5천7백51억3천만원을 투입、해안지역매립과 부지조성사업등을 착수하기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牙山灣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재조정、제약단지및 LNG저장시설、수도권공장 이전을위한 새로운 소규모지방공업장려지구로 개발하고 지방공업단지를 위한 한만도개발하기로했다.

헤이그、上院서 非常計劃증언
"西歐 一定限界이상 在來式공격 받으면 나토、對蘇 示威的 核반격"

【워싱턴4日聯合】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4일 만약 소련이 서유럽에 「일정한계」이상의 재래식공격을 가할 경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에대한 경고조치로 소련에 「시위적핵공격」을 가할 비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이와함께 對蘇군축협상의 성패가 미국의 군비현대화계획 달성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나토의 [illegible] 핵미사일배치계획을 강력 [illegible] 할것을 촉구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1천8백억달러에 달하는 레이건행정부의 전략무기 현대화계획에 관한 上院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가운데 소련이 서유럽을 위협할경우 이에따른무력사태를 가능한 최저수준에서 억제한다는 기본 전략을 나토가 세워놓고있으며 소련에 시위적 核공격을 가하는 것도 이억제전략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나토가 상대방에『그들의 재래식 공격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주지시키기위해 이같은 시위적 核공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核무기의 사용은 예측할수없는 위험을 수반하기때문에『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蘇、헤이그非難

【모스크바4日聯合】 소련은 4일 전쟁발발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對蘇경고목적으로 핵무기를『시위』발사할 계획을 갖고있다는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발언은 나토의 선제핵공격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基督兒童福祉 총재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5일 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基督敎兒童福利會의 제임즈·매크라큰총재를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千命基보사부장관과 기독교아동복리회 車潤根한국지부장이배석했다.

88서울올림픽 契機로
유엔同時加入 強力히추진
蘇·中共에 外交노력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을 80년대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해온 정부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오는88년을 유엔加入을 위한 最適시기로 판단、이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외교당국자들은 이를 위한 첫작업으로 한국의 유엔加入을 저지해온 소련및 中共등 유엔安保理의 2개공산권 常任理事國을 상대로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拒否權(Veto)행사를 유보토록 하거나 여의치못할경우 不參또는 기권을 유도토록외교노력을 펼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외교소식통은 5일 소련과 中共에대한 외교노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련또는 中共과 밀접한관계를 갖고있는 유럽또는 아세안국가를 選別、이들국가를 통해 정부의 1·12및 6·5제안의 취지와 배경을 전달토록하고 ▲「제3세계」에 대한 비동맹외교를 더욱 活性化、한국에 대한 비동맹세력의 지지와 상원이 中蘇에 영향을 미칠 수있도록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소련과 경제 또는 地政學的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西獨·英國·벨기에등과 우리정부가 개최해온 年例政策協議會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한편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北歐理事會(Nordic Council)와 非同盟國을 상대로 南北韓유엔동시가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같은 외교노력을 강화할경우 오는88년까지의 유엔동시가입 목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따르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3년 「6·23선언」이후 南北韓유엔동시가입을 표방해 왔으나 北傀의 거부와함께 70년대의 東北亞정세와 관련、이렇다할 외교적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실망한 두宇宙人 美國우주비행사 리처드·트룰리해군대령(右)과조·엥글공군대령이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발사연기발표후 콜럼비아호로부터지상기지로 돌아오고있다.【케네디우주센터4日AP聯合】

콜럼비아號 발사 1週연기
보조動力장치 潤滑油오염

【케이프카내베럴4日AP·UPI=聯合】 美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역사적인 2차 우주여행에 나설 예정이었던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발사를 앞두고 최종카운트다운을 하던중 4일상오(현지시간)연료탱크와 자상컴퓨터등에 문제가생겨 2차례나 카운트다운이 중단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은후 마침내 약1주일간 발사를 연기했다고 美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했다.

당국은 이날 콜럼비아호발사에 생긴 가장 중요한문제는 콜럼비아호의 水力學的비행통제체제 유도에 이용되는 3개의 보조동력유니트중 2개에 윤활유의 오염이 발견된것이라고 밝혔다.

NASA관리들은 관계전문가들이 콜럼비아호 2차발사를위한 새로운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수일이 소요될것이라고말했다.

公務員增員 억제
總定員制 도입키로

정부는 5일 기구축소개편작업이 완료됨에따라 정부기구나 공무원이 무원칙하게 다시 늘어나는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공무원의조직및 定員에관한 通則을고쳐 各部處定員制를 마련한데이어 來년 국회에넘길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공무원의 정원을 정부전체수준에서 묶는 總定員制를 도입키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各部處조직의 개편이 확정되지않은 현재로선 이 總定員制의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總定員制의 실시근거만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總定員制의 실시근거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職務의 성질상 2개이상행정기관의 定員을 통합、관리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定員을 통합해 정할수있다」는 규정을 신설할것으로 전해졌다.

金容烋총무처장관은 이날 『공무원총정원제는 단계적으로 시행、궁극적으로는 全정부차원에서 정원을 묶어 그범위안에서 인원을 활용하는방향으로 나아갈것』이라고 밝혔다.

社会漫評

뭣이 잦으면…
뭣이 나온다니까…

地平線

세계적인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해외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은 늘고만 있다. 작년한해동안 세계에서는 자그마치 2억8천5백만명의 관광객이 해외나들이를 했다고 세계관광기구는 말하고 있다. 79년에 비해서 6%나 늘어난숫자다. 가장 많이 여행을하는 사람들은 서독·프랑스·영국·미국사람의 차례다. 뿐만 아니라 이들중 2억8백만명이 유럽각국을 찾고있다.

▼해외나들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서독사람이다. 작년에 세계관광시장에 뿌린 돈의 25%가 서독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백10억달러(14조4천9백억원)로 국민총생산(GNP)의 2.5%나 된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의 1백억달러、영국의 65억、프랑스60억、일본 45억달러다. 서독은올들어 반년동안에도 10%를 더쓰고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바로 장사가 재미를 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의 항공사들은 작년부터 적자에 허덕이고있다. 지난 한햇동안 정기여객기편으로 해외나들이를 한사람은 전후 처음으로 0.5%떨어졌다는게 국제민항기구의 숫자다. 70년대엔 평균해마다 10%씩 늘어난것과대조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거꾸로 기름값은 껑충 뛰고있다.

▼항공사의 운영비중 기름값은 10년전만해도 10~12%였다. 그러나 지금은 30%나 되고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의 항공업계는 작년에 1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흑자를 낸것은 스위스·서독·네덜란드와 미국의 델타항공사뿐이다. 올해엔 항공업계의 불황이 더 커져서 2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볼것으로 짐작된다. 말하자면 세계의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린상태다.

▼세계항공업계의 관심은 기름이 적게드는 보잉767등의 새로운 비행기와 새로운 운항노선을 찾는데 쏠려있다. 80년대중반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새로운 비행기로 무장해서 한몫잡자는 계산이다. 세계최대의 비행기회사인 보잉은 91년까지 4천7백대、돈으로 쳐서 1천2백29억달러의 항공기수요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보잉767이 그중 55%를 잡자는 것이다.

▼세계항공업계가 군침을 흘리는 것은 北京노선이다. 중공당국에 의하면 작년한햇동안 5백70만명이 北京을찾아 6억달러이상을 뿌렸다. 85년에는 7백만명을 받을 작정이다. 아직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화교지만 어쨌든 北京노선은 노다지판이 될게 분명하다. 북괴가 느닷없이 [illegible] 北京노선의 북한통과를 넘겨짚은 이유도 알만한 일이다. 돈도 벌고、덤으로 정치적이득도 보자는 속셈일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개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일반즉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1월 8 일자
주간女性
글마저 안쓰면 소녀에 너무 허전해요 — 글짓기 大會서 최고상 받은 李榮姬씨
「別名」「테니스 집시」李德姬양
新郎이 동침 거절 新婦살해
하키 女심판 申正姬양의 꿈
스타誕生 夜話 패티 金 편
書藝 가르치는 尹性海 스님
독일出身며느리 「도로시 金」
사랑의 테마 「夫婦의 돈관리」
〈前미스·코리아 金城雅〉

紅一點 스쿠버·다이버 朴惠淑양의 바다 讚歌
미스數에 오른 張美姬양 "나도 할말이 있다"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밭식품포함)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거구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news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新興무기生產國들 頭角

—世界의 武器市場판도가 달라지고있다

세계무기시장은 1천5백억달러짜리 노다지판이다. 헬메트에서 최신예 유도미사일까지 수천종이 다루어지는이 시장이 미국 소련을 비롯 東西歐몇 나라에 독점지배되던 시기는 지났다. 브라질을 선두로 이스라엘 南阿共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등 제3세계내 중진국 그룹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까지 생산, 엄청난 세계무기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고있다.

이들 무기생산국이 지닌강점은 美蘇등 초강대국과는달리 아무런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상대를 가리지않고 어떠한 무기든지팔수있다는점. 그래서 생산과 세일즈는 모두 조용히하지만 사뭇 공격적이다.

또이들이 생산하는 무기의 질이 우수함에따라 미국과소련도 이들로부터 일부무기를 사들이는 역현상도 자주일어난다.

게다가 값은 제3세계국가들은 강대국에 무기의존도를 줄이려 하고있어 새공급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값에 공급하는 무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美군축국의 로버트·하카비는 『일부 국가는 소련이나 서구국가로부터 원하는 무기를 마음대로 살수없을 뿐아니라 무기 판매에 따른 정치적 부대조건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 국가는 다른 무기구입선을 찾는다』고 말한다.

중진국의 군수산업은 대부분 자국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다.

외부에 고립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바로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군수산업을 개발한 좋은예이다.

지난 20년동안 제3세계의 방위비는 배로 증가하여 지난해 1천억달러에 달했다.

지금까지 방위비 증가의파고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일어났다. 오일달러의 수입으로 일부국가의 방위비는 지난69년이래 무려 3배나 늘었다.

남아메리카와아시아국가들의 방위비증가는 국민총생산(GNP) 증가분을 능가하고있다.

強大國 독점時代는 지나

브라질産 人氣…美·蘇서 사들이는 逆현상도

브라질이 군수물자를 해외에 판매하기 시작한것은 6년전이다. 브라질의 수백개에 달하는 군수산업체들은 올해 15억달러의 군수물자를수출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브라질관리들은 85년까지 연간50억달러를 수출할수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군수산업이 국내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자랑한다.

이들은 또 『군수산업은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한다.

77년 카터 美행정부가 인권문제를 이유로 對브라질군원을취소하자 이나라의 군사지도자들도 당장 군수산업강화·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나라의 군수산업도 77년 리비아가 이집트와 국경충돌시 브라질의 카스카벨장갑차를 구매하면서 도약하기 시작했다.

이장갑차의 성능이 인정되어 주문이 쏟아졌다.

한때 소규모지방자동차 제조업체였던 카스카벨장갑차 메이커인 엔게사회사는 현재 소련권외의 어느 단일회사보다 많은장갑차를 생산하고있다.

국영항공기제조업체인 엠브라어회사는 성능좋은 경비행기제조로 성공했다. 이회사의 매상고는 6년동안 5백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었다. 이회사는 현재 전투기 수송기 연습기까지제조한다.

브라질산무기는 성능을 인정받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구입하고있다.

미국의 신속배치군은 앞으로 개조된 브라질산 우르투장갑차를 사용할것이고 소련은 브라질제 탱크용기관총을 이미 구입했다.

개발도상국은 훌륭한 무기시장이다. 이라크는 현재 카스카벨장갑차와 공대지미사일의 꾸준한 구매자이다. 이것들은 이란과의 전쟁에서사용된다.

칠레는 연안해안경비를 이스라엘제 밴다이어랜트로 한다. 볼리비아는 6대의 브라질제 헬리브라군용 헬리콥터를 구입하고있다.

이스라엘의 무기수출은 극비이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36개국에 무기를 수출, 13억달러를 벌어들인것으로 추산된다.

에콰도르는 케피르 전투기 24대를 사갔고 리세프고속정과 가브리엘 함대함미사일은 남아연방이 구입하고있다.

또 이스라엘은 약30만발의 1백5㎜ 대전차용 고성능폭탄을 16개국에 팔았다. 근접전에 무적이라는 기관단총 우기는 75만정이나 전세계에 깔려있다.

이스라엘의 무기판매에 있어서 조건은 다만현금거래로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대만등이 가장큰 고객이다.

남아공은 소련제를 제외한다면 전세계에서 10번째무기생산국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이 유엔의 수출규제에 걸려 자급자족하기위한 것이다.

남아공의 인레드장갑차는 모로코로, 훈련기는 나이제리아로, 카터스지대공미사일 시스팀은 칠레로 각각 판매되고있다.

대부분의 남아공무기는 외국제의 복제이다. 그 이유는 남아공에는 임금싼 흑인들을 고용시킬수 있어 생산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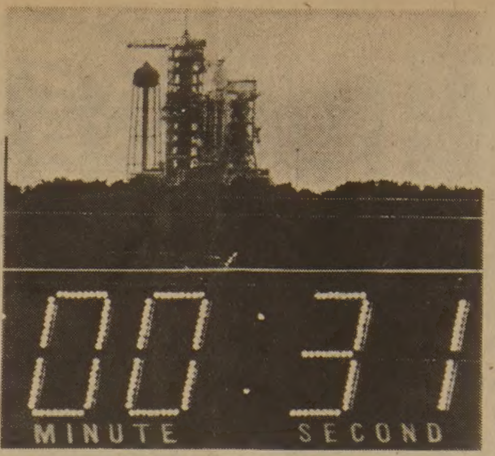
다른나라들도 이제 강대국이 더이상 신경쓰지않는 중간수준급의 무기를 만든다.

유고슬라비아의 오라오제트전투기는 낡아 빠진 영제나 프랑스제 자구아탱크에 대체되어신상품으로등장했다. 터키는 소형무기들을 만들어 해외에 판매한다.

서방선진국및 소련제무기는 아직 장점이있음으로 제3세계의 무기수출은 겨우그들의 4%에 지나지않는다.

그러나 이숫자는 점차 증가할것이다. 그것은 무기의 생산이점차 이들 제3세계에의해 잠식되어가고 있기때문이다. 【뉴스위크】

◇브라질이 리비아 이라크에 수출하고있는 장갑차 EE-9형 카스카벨. 90밀리砲가 달려있다.



◇31초에서 멈춘 카운트다운時計 美國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발사 31초전을 앞두고 이상이 발생, 카운트다운시계가 멈춰있다. 【케네디우주센터 (플로리다州) 4日AP電=聯合】

조그마한 잘못도 許容치않는 컴퓨터

콜럼비아號를 주저앉혔다

25弗짜리 윤활유가 百억弗 우주비행늦춰

15년동안 기다렸던 두宇宙人은 허탈감에

5週 늦어진 延期、또 1週뒤로

發射9分前첫異狀

○…콜럼비아號의 발사연기는 조그마한 잘못하나라도 절대로 허용치않는컴퓨터의 정교함을 생생히보여준 한예였다.

케네디우주센터 39A발사대에서 발사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콜럼비아號의 8만가지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가던 5대의 컴퓨터는 발사 9분전 첫번째 이상을 발견했다.

주연료탱크의 압력이 조금 낮다는 것이었다.

발사를 맡은우주센터과학자들이 이를 교정한후카운트·다운은 15분후 재개됐다.

발사 31초전 또다시 카운트·다운을 기록해가던 시계가 멈춰섰다.

이번에는 콜럼비아號의 몇개의 산소탱크에 압력이 높다는것이었다.

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별로 큰문제가되지 않는다고보고 컴퓨터에 이를 무시하고 카운트·다운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발사31초전의 상황에서더이상계속하기를 2차례나거부했다.

○…발사계획관계자들은 처음 카운트·다운이멈춘 원인을 정확히 알지못해 혼선을 빚었다.

일부 관계자들은 1차비행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고장이라고 말하는가하면 다른관계자들은 연료탱크의 압력이상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카운트·다운을 관장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다시 발사전 20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다시 점검하는동안 모빌제트2라고 불리는 보조동력유니트의 윤활유압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에 해리스우주센터대변인도 발사가 지연된 원인이 컴퓨터의 고장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조금있다가 아직까지 발사지연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 발사연기기간도 처음에는 48시간 연기로 했다가 나중에 약1주일이 걸릴것이라고 정정했다.

필터에 엉겨붙어

○…보조동력 유니트는 콜럼비아號의 비행을 조절해주는 장치로 궤도비행시에는 필요가 없지만 발사·대기권재돌입·착륙등의 경우에 기체의 움직임을 바로잡아주는기능을맡고있다.

콜럼비아號에 장치된 3개의 보조동력유니트중 2개의 윤활유가 새어나와 필터에 엉겨붙어 윤활유의 압력에 이상이 생긴것이다.

이문제를 둘러싸고 2시간동안 토의를 한 끝에 발사본부는 결국 발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각 윤활유시스팀은 각기 우회밸브가 장치되어있기 때문에 필터가 좀 막혔다고 해서 비행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잘못된 윤활유가 콜럼비아號가 지구로 귀환할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리터에 5달러밖에 안되는 (25달러어치) 윤활유 5리터가 콜럼비아號의 1백억달러짜리 우주비행을 연기시킨 셈이다.

첫비행때도 使用

○…말썽을 일으킨 보조동력유니트는 지난 4월의 처녀비행때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보조동력유니트 2개를 아예 교체해버리거나 아니면 기름이 엉겨붙은 필터만 바꾸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후 새 윤활유를 넣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 고장을 수리할 예정이다.

延期거듭에 담담

○…콜럼비아號 발사에 관계하고있는 과학자들은 발사연기결정에 대해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지난 4월의 처녀비행때도 발사직전에 컴퓨터이상으로 2일 연기됐었으나 이번 2차비행은 당초 계획보다 5주나 늦어진 이번까지 합쳐 벌써 여러번 연기되었기 때문인듯 하다.

두宇宙人가장실망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美우주계획상의 이유로 콜럼비아號의 발사가 약1주일간 연기되자 가장 허탈감에 빠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엥글대령과 리처드·트룰리해군중령등 두 조종사.

15~16년씩이나 기다리던 우주여행을 위해 각각 최초의 우주비행을 앞두고 4시간30분이나 우주선안에서 기다리다가 하강한 두사람의 표정에서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콜럼비아호의 발사장관을 지켜보기위해 캐나다에서 온 70명의 캐나다초청인사들은 이번 발사에 캐나다가 제작한 우주선의 로보트팔이 날아오르는 광경을 볼수 없게되자 크게 실망.

숙박업자들 歡聲

○…이번 발사연기에 유일하게 신이난 사람들은 케네디우주센터 인근의 숙박업자들과 상점주인들. 이번 발사연기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이곳에 머물거나 한번더 이곳을 찾게되어 이들에게는 발사연기가 곧돈벌이에 직결되는셈. 【케이프카네베랄=聯合】

蘇、스웨덴近海서 武力시위

프리기트艦등 3척을 急派

【카를스크로나(스웨덴)4日UPI=聯合】스웨덴은 카를스크로나해군기지부근에 좌초한 소련잠수함의 스파이행위여부를 조사하기위해 4일 스웨덴해군장교1명을 세차례에 걸쳐 소련잠수함에 승선시켰으며 소련은 3척의 또다른 군함들을 스웨덴근해로 급파,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카를스크로나 해군기지의 에버트·달렌대령은 스웨덴해군의 안데르손중령이 이날 승선, 함장인 구신대령과 『기술적 문제에 대해』얘기를 나눴으나 스웨덴측의 좌초잠수함에 대한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렌대령은 또 소련이 이 해역에 파견한 예인선과 구축함외에 이날 다시 호위함 1척과 프리기트함 1척을 추가로 파견,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蘇艦長신문 報告書 스웨덴海軍、首相에

【카를스크로나4日UPI=聯合】스웨덴해군당국은 좌초한 소련잠수함 함장 구신대령에대한 신문내용을 토대로 4일 7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 이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토르비외른·펠딘 스웨덴수상은 곧 각의를 열고 보고서내용을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스벤·카를손 스웨덴 해군중령은 이날 해군당국이 좌초잠수함에 대한 조사및 구신함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많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美、요르단에 武器판매考慮

호크對空미사일등 8億弗상당

레이건·후세인頂上會談서논의

【워싱턴4日AP=聯合】레이건 美행정부는 요르단에대한 8억달러상당의 改良型 호크對空미사일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국방성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과 후세인 요르단왕간의 지난3일 회담에서는 요르단의 방위력강화를위한 군사무기판매방안이 집중 거론됐다고 말했다.

요르단은 이미 美製호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美측은 이를 개량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관련 레이다장비와 부품들을 포함한 10개의 호크미사일포대 매매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이 회담에서는 또 사우디의 무기판매문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의회는 당시 이 이동식미사일판매를 승인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었다.

埃、美서購入키로 레이다偵察機4대

【카이로4日UPI=聯合】미국은 이집트에 E2C호크아이 레이다정찰기4대를 팔기로 동의했다고 압델·할림아부·가잘라 이집트國防相이 4일 밝혔다.

가잘라국방상은 이날 카이로의 주간지 아케르·사와의 회견에서 그와같이 밝히고 이집트가 구입한 6억5천만달러상당의 E2C정찰기 4대는 수년내에 이집트에 인도될것이라고 말했다.

埃·리비아關係改善 확실 차드駐屯 리비아軍 철수계기로

【파리4日AP=聯合】부트로스·갈리 이집트 외무담당국무상은 차드주둔 리비아군철수는 이집트와 리비아관계를 개선시킬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파리에서 열리고있는 프랑스·아프리카정상회담에 옵서버로 참석하고있는 갈리국무상은 약1만명의 차드주둔리비아군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언급, 그같이 말하고 우리는 차드수도 엔자메나로부터의 리비아군철수와 함께 리비아국가원수인 가다피대령이 수단에대한 전복기도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FP통신은 이날 엔자메나발기사로 리비아군철수가 연이틀째 계속됐다고 전했으나 차드정부는 이에관한 공식통보를 못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구쿠니·웨데이차드 대통령은 가다피원수가 그의 리비아군철수요구를 수락했다고 밝혔으나 리비아정부는 아직 리비아군의 차드철수를 공식확인하지 않고있다.

美의 유럽核억제에 蘇SS20폐기先行 벨기에 蘇에警告

【브뤼셀4日AP=聯合】벨기에는 미국핵미사일의 유럽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구를 위협하는 소련의 SS20미사일을 폐기하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모스크바당국에 경고한것으로 4일 밝혀졌다.

中共、美컴퓨터購買

【北京4日UPI=聯合】중공은 아마도 레이건美행정부의 對中共정책을 시험하기위해 5백50만달러상당의 최신 컴퓨터구매계약을 미국의 버로프스社와 체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2백만弗 추가出資 國際開發協會에

정부는 國際開發協會(IDA)의 재원보충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2백13만달러를 추가출자키로했다. 이로써 IDA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액은 현재의 3백21만8천1백5달러에서 5백34만8천1백5달러로 늘어나게 되는데 IDA총재원에 대한 출자비율은 0.02%로 변함이 없다.

波、政府·勞組·가톨릭代表 3者會談가져

【바르샤바4日AP·外電=聯合】폴란드사회의 3대핵심인 정치·종교·자유노조지도자들은 4일 共産통치 36년사상 유례없는 3者국내회담을 갖고 폴란드가 당면한 난국타개책을 협의했다.

폴란드공산당제1서기겸수상 야루젤스키와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글렘프가톨릭대주교는 이날 소련대사관이 마주 보이는 영빈관 건물에서 하오5시(현지시간)부터 약 2시간동안 회동, 국내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교회와 자유노조의 역할확대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이들 3巨頭회담에서는 폴란드가 당면한 국내위기해결책을 논의하고 거국적인 화해에 의견이 교환됐다고 보도했다.

글렘프대주교와 바웬사는 對話의場설치, 합의전선구성, 합구적인원칙을 바탕으로한 정치·사회세력간의 상호협의 가능성에 관해 회담을 가졌으나 회의내용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1월까지 罷業중단키로 波勞組會議、決議案채택

【바르샤바4日AP=聯合】폴란드 자유노조는 내년1월말까지 모든 항의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고 4일 노조소식통이 말했다.

북부항구도시 그다니스크에서 열린 자유노조지도부회의에서 찬성 57대 반대 3표로 채택된 자유노조의 3개월 파업중단결의안은 자유노조 회원의 정치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업을 정당한것으로 인정할수 있게했다.

메아리

고대로마신화에 나오는 야누스(Janus)는 출입구를 지키는 守護神이었다. 앞뒤에 두개의 얼굴을 지닌 이 雙面神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로마성을 드나들수 없었다.

로마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때면 반드시 야누스神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 세상만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영어의 1월(January)은 야누스에서 나온 말로 알려졌다.

내일이면 입동, 계절은 바야흐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 小雪도 이달 하순께 들었으니 겨울감각은 날로 짙어간다. 눈앞에 다가올 세모를 두고 벌써 가는 해와 오는 새해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세모는 입동이니 소설이니 하는 節氣보다 오히려 캘린더가 앞질러 전해 준다. 로마시대 야누스神의 자리를 현대에 와선 캘린더가 차지한셈 같다. 새해 달력이 나오면 마음은 괜스레 조바심을 친다. 내년 달력은 더위가 가시기 전인 지난 8월말께 벌써 인쇄되기 시작했다. 商魂은 놀란만큼 세월을 앞질러 살아간다. 인

달력 人心

쇄술의 발달은 달력을 상업정신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놓았다. 눈부신 그림과 여인의 모습이 더욱 눈길을 끌고 상업광고의 원색으로 장식되었다. 日月은 있어도 節分은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曆이 없는 曆이 오늘의 달력이라는 탄식도 들린다.

원래 달력은 농경, 상업생활과 경조의 기본으로 이어졌다. 거기엔 日出, 日沒, 月出과 조수간만등 생활에 관계되는 잡다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달력은 가고 오는 세월만 가르쳐 주는 듯 삭막한 느낌도 없지않다. 「달력人心」이라는 말처럼 세모의 인정을 담아주는 것이 캘린더이기도 하다. 선물로 받았든 사서 들고 가든 달력과 함께 우리는 묵은해를 회고, 반성하며 새로운 설계와 꿈에 젖는다.

새해의 캘린더사정이 不況탓으로 그숫자와 넓이가 줄어들고 호화·대형보다 中·小型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한다. 한때 유행하던 그림 대신에 각종레저취향의 사진이 등장하는 모양이다. 캘린더의 사진은 세태의 풍속도를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호화와 대형의 군살을 뺀 달력을 걸어두고 알뜰한 삶을 구상해 보아야겠다.

「게릴라戰爭」으로 불리는 白堊館·國務省 權力暗鬪

특파원리포트

【워싱턴4日=曺洋煥특파원】美정계에는 외교정책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암투가 「게릴라 전쟁」이란 이름으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잭·앤더슨 칼럼이 『지난 9개월 동안에 헤이그국무장관을 목표로 백악관보좌관이 게릴라전쟁을 벌여왔다』고 보도했고 피셔국무성 대변인은 이 문제로 헤이그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까지 이례적으로 국무성기자 브리핑에서 공식확인했다.

헤이그 장관은 지난31일 앤더슨 칼럼이 신문에 보도되기전에 미리 내용을 전해듣고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휴가중인 레이건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백악관의 고위보좌관이 국무장관을 상대로 게릴라 전쟁을 벌여왔다』고 항변했다고 피셔국무성 대변인은 확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헤이그의 전화를 받고 「게릴라전쟁」을 확인하기 위해 두차례나 앤더슨씨에게 전화를 한다음날 헤이그장관을 『좋은국무장관이며 오랜만에 우리들이 가질수있는 최고의 장관이다』고 말했다고 거겐백악관대변인이 3일 백악관기자브리핑에서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은 헤이그국무장관과 앨런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에 가장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고 말해 「게릴라전쟁」의 진원이 앨런이라는 것을 워싱턴·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지는 4일자에 크게 보도했다.

앨런보좌관은 3일 헤이그장관으로부터 그 문제로 전화를 받았으나 『헤이그가 나에게 의심을 두는것같지 않다. 나는 게릴라투사가 아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다.

백악관과 국무성고위관리들은 미즈 대통령고문의 역할이 각료들간에 불화가 있을때 조정하는 것인데 그불화를 대통령에게 진작 알리지 못했다는것을 비난했다고 한다.

국무성과 백악관관리들은 이게릴라전쟁이란 권력암투가 주말중에 대통령과 국무장관간에, 대통령과 칼럼필자 앤더슨간에 또 헤이그와 앤더슨간에 전화가 오고가고 이런사실이 국무성대변인과 백악관대변인이 확인하여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紙 1면에 크게 보도되어 미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고보면 아마도 헤이그,앨런,미즈그리고 베이커백악관비서실장중 어느 한사람은 이 「게릴라전쟁」으로 물러서게 될지도 모른다.

앤더슨칼럼보다 한 열흘전에 나온 조셉·크래프트칼럼은 앨런보좌관이 사임하고 미즈고문이 국방장관으로, 와인버거국방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옮겨앉을것이며 팀웍에 서투른 헤이그는 물러서게 될것이라고 백악관소식통이 밝혔다고 보도한바있다.

SAI WOO레스토랑 (西湖酒樓)

「1954년에 설립된 토론토의 가장 훌륭한 중국음식점」

온갖 중국음식을 제공 합니다.
— BUSINESS MEN'S점심
— 파티및 연회환영
— TAKE OUT써비스
— 가족 저녁식사 제공

월~토 : 11 : 30~2 : 00
일요일 : 11 : 30 ~1 : 00

130 DUNDAS ST.W.
(던다스×베이)
☎ : 977-4988~9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총 9개소)

1부당 30¢
현재 주3일 배달.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 발송부

아쉬운 쓰레기 燒却場

분리收去 실효 의문

비닐·고무등 묻어도 소용없어

埋立場 시설도 4年후면 飽和

"都市쓰레기 26%가 可燃性"

◇「영원한 公害」불사르자 무엇이든 모두 묻어버리는 쓰레기매립지。플래스틱이나 비닐등 가연성쓰레기를 태우지않고 그냥 묻으면 영원히 토양을 오염시킨다。그래서 가연성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

별로 중요한것 같지않은 「쓰레기 소각장」이 정말 아쉽다. 내달초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46개 시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게 되니까 갑자기 그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공해요인을 없애고, 매립지의 수용연한을 연장시키는등 큰의의가 있지만, 소각장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시범이될 공산이다. 더구나 전국 주요도시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에 따라 앞으로 1~4년후면 완전매립될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소각장설치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아닐수없다.

서울시의 경우 유일한 쓰레기 매립장인 蘭芝島가 지난77년 3월부터 매립을 시작한후 4년6개월만인 지난 10월31일 현재 총면적 89만평중 35%인 31만여평이 쓰레기로 들어찼고, 나머지 58만평도 4년후인 85년까지 매립 완료될 전망이다。

그밖에 全州、釜山、城南、馬山、春川등 전국 14개도시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매립장이 앞으로 1년이내에 매립이 끝날것같고 大邱、水原、忠州、仁川、光州、忠武등도시도 현재의 매립장 수용연한이 2~3년밖에 남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1일 쓰레기평균수거량 2만2천1백톤중 가연성쓰레기가 2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소각처분할 경우 매립장의수명은 그만큼 연장된다。그러나 소각장이없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보았자 큰도움이 안된다。

서울시 당국자에 따르면 분리수거된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지는 못하더라도 2m정도 두께로 깔고그위에 연탄재등 비가연성쓰레기를 덮으면, 가연성 쓰레기의 부식이 촉진되어 토양의 오염을 어느정도 줄이는정도의 효과는 있다。

그러나 가연성쓰레기중 비닐、고무、플래스틱등은 매립된 후에도 썩지않고 가장 중요한 공해요인으로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매립지의재활용이란 장기적 안목으로볼때도 이를 태워없애는것만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당국자는 이런 형편인데도 소각장을 만들지않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도하는게무슨 의미가있겠느냐고따진다。

앞으로 분리수거시범지역주민들은 쓰레기통을 3개씩준비해야하고 또 쓰레기를분류해서 버려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되는데 수거당국도요일별로 수거종목을 달리해야하는등 어려움만이 따르게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1일 1천톤의 쓰레기를 소각할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2백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거에 연료비、시설 유지비등 연간 30억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서울시의 한관계자는『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국토를 계속 쓰레기로 메워나갈 수는없는 일이고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실시와 함께 소각장 건설은 시급한문제』라고 말했다。

재두루미등稀貴철새 渡來地

"洛東江하구 댐建設 중지를"

국제自然保存聯 "아시아제1의 自然寶庫망쳐서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洛東江하구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중지하도록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공한국정부에 공식전달하기로 했다。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자연보존연맹 총회는 한국과 네덜란드대표가 제안한「洛東江하구 자연자원보호안」을 심의한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洛東江하구지역에대한 개발을 억제할것과 생태학적인 학술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연자원보호대책을 세우도록」촉구키로 했다고 이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던 慶熙大 元炳旿교수가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洛東江하구가 재두루미·흰꼬리수리·참수리·독수리등 세계적인 희귀조류의 이동경유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자연보고」라고 지적하고 ▲댐건설중지 ▲간척지매립중지 ▲자연자원보존 대책수립 ▲수질오염방지대책수립 ▲자연보호법제정등 5개항의 결의를 한국측이 따르길 촉구했다。

이같은 총회결의는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한국정부에 전달될 예정인데、3년후에 열리는 총회에서 결의사항의 실행여부를 보고받도록 돼있다。

건설부는 洛東江하구에서부터 1.3km상류인 乙淑島를 관통하는 길이 2km·높이 15.5m의 댐을만들어 金海평야의 염해를 방지하고 새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계획에대해 한국자연보존협회는『생태계변화를 초래할 공사는 치밀한 평가를 한다음에야 실시해야하며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지적、댐건설을 적극 반대해왔다。

댐공사가 추진되고있는 洛東江하구~乙淑島 2만5천ha는 지난66년 천연기념물 1백79호로 지정된곳으로 해마다 1백37종 10여만마리의 조류가 찾아오는 철새의낙원이다。

◇철새의 樂園…해마다 10여만마리 찾아 해마다 10여만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洛東江하구。국제자연보호연맹이 이곳의 댐건설계획을 중지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自家운전으로 남는 官用운전사

개인택시免許 우선配定

정부는 5일 고급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自家운전제를 내년부터 실시케됨에따라 남는 官승용차 운전사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82년에 고급공무원승용차(대상 2천여대)의 20%、83년 30%、84년 50%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자가운전제를 실시할방침인데 자가운전공무원에게 油類代등 최소한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개인택시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점차적으로 개인택시를 늘려가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취학通知書만 있으면—

國校生전입학 허가

生活기록부등은 공부하면서 내게

문교부

문교부는 5일 국민학교생의 전입학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국민학교아동전입학업무처리지침을 마련、각시·도교위에 시달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국민학교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타학교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자의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만으로 우선 취학을 할수있도록하고 전학교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등 전학서류는 추후에 보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민학교학생이 주소의 이전과 동시에 전입학을할수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전입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와 현재 취학하고있는 학교에서 교부한 생활기록부및 건강기록부등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만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이사를 하고도 최소한 3~4일간씩 결석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트럭 轢殺뺑소니

목격運轉士 6km추격 검거

4일밤 9시께 서울江西區新月3洞96의5앞 남부순환도로에서 서울7마1889호 2.5톤 타이탄트럭(운전사 孫元一·35)이 길을 건너던 白基錫씨(42·보일러공·江西區新月3洞41의65)를 치어 숨지게하고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간 서울1사2165호 포니택시 운전사 李순씨(48·서울冠岳區奉天6洞66의61)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헌혈증서도 영구히사용하게

「獻血서비스제도」내년실시

肝炎·性病여부등 비밀리通報해줘

대한적십자사는 내년부터 헌혈하는 사람의 피를검사、감염여부를 비롯 간기능검사와 성병의 유무를 판명해 비밀리에 통보해주는 헌혈서비스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적십자사는 5일 연평균 10~15%씩 증가하고있는 피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헌혈운동의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사랑의 헌혈운동을 촉진하기위한 방안으로 헌혈자의 피검사를 통해 간기능검사및 성인병 유무를 판명해주는서비스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간기능 검사를 해주기로 한것은 올해 헌혈자의 피검사결과 간염바이러스 환자가 작년보다 두배가 많은 1백명중 10~12명으로 늘어나 간염발생률이 크게증가함에 따라 간염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것이다。

적십자사는 또 지금까지 10년으로 돼있던 헌혈자의헌혈증서 유효기간을 영구로해 헌혈자가 뒤에 수혈을 받을 필요가 생기는경우 언제든지 헌혈한 양만큼 무료로 수혈을 받을수 있도록했다。

암소 13마리 密屠殺 판매

【釜山=聯】釜山지검은5일 도살이 금지돼있는 2년생암소 13마리(시가 5백21만원)를 자기집창고에서 밀도살해 팔아온 趙坰濟씨(29·경남梁山郡鐵馬面檢谷里571)를 축산법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趙씨의 동생 趙濟씨(25)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육업자인 趙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해 6월23일 金海소시장에서 구입한 2년생 암소 2마리를 자기집 창고에서 밀도살한것을 비롯 지난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2년생짜리 암소 13마리를 밀도살、이웃주민과 釜山의 정육상들에게 팔아온 혐의이다。

趙씨는 한우증식을위해 도살이 금지된 6년생이하 암소가운데서 고기질이좋고 비교적 값싼 2년생 암소만을 골라 밀도살해왔다。

聖光高교장·재단이사장 해임

不正편입학사건

【大邱=聯】大邱시교위는5일 聖光고등학교 부정편입학사건과 관련、李圭元교장과 金容鎬재단이사장을 해임조치하고 학교법인 재단이사8명의 취임승인을 모두취소、관선이사를 구성해 학교를운영키로했다。

시교위는 또 부정편입학과 관련된 柳聖吉교감과 金龍奉교사등 관련교직원 8명을 감봉·파면등 중징계처분키로하고 금명간 첫관선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종류를 결정키로 했다。

金容大교육감은『지난달20일부터 聖光高에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결과 지난7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6백60명의 학생을 부정편입학시켜 학부모들로부터 5억3천4백만원을 받아 교지매입및 교실증축에 사용한 사실을밝혀냈다』고 말하고『내년도에 야간부 2학급을 감축하고83년도부터 동교의 야간부를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자 테니스大會 李順子여사 참관

安養유아원도 찾아

【金蕙기자】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5일상오 서울孝昌공원내 한국여자테니스연맹코트에서 열린 제1회 무궁화컵 전국여자테니스대회 개회식에 참석、대회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사진)

李여사는 이어 이날하오京畿道 安養市安養2洞 安養새마을협동 유아원준공식에 참석、준공테이프를 끊고 7년생朱木한그루를 기념식수한뒤 원아들에게 원아복등을선물했다。

中共어선 4隻 濟州연안 대피

【濟州=聯】동지나해에서어로작업중 기상악화로 대피해 온 것으로 보이는 1백~1백50톤급 중공어선4척이 5일하오 2시30분께부터 우리영해인 제주도 西歸浦남방 6.5마일 해상에 머물고있다。

제주지구 해양경찰대는 이같은 신고를 받고 이들 어선들이 대피하고있는 해상에 초속4미터의 강풍과 높이4미터의 파도가일고있어 대피장소로는 위험이있다고 판단、이들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해안가로 대피시키기위해 5일하오4시30분께 西歸浦항에서 통역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경비정을 보냈다。

金東極씨 별세

〈前 東洋 放送사장〉

전 東洋放送社長 金東極씨가 5일 상오0시25분 서울江南區 瑞草洞 進興아파트 7동 906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56세。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사장님, 저에게 1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사장님께서 저를 대하는 방식에 피곤하고 진절머리가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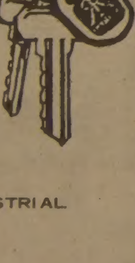
" 저는 여기서 사무실 지배인 이니까 좀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이점에대해 뭐라고 말씀하사겠읍니까?!"

"자네에게준 1분이다 됐네"

—꽝—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E.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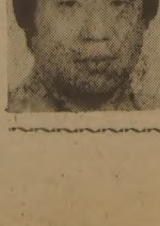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80年代의 國際관계

國際政治學會주최 國際學術회의

한국國際政治學會(회장 李昊宰)주최 제3차 80年代 國際關係에 관한 국제學術會議가 5일부터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리고있다. 7일까지 계속될 이번 학술회의는 1部와 2部로 나뉘어져 1部에서는「새로운 국제질서」「80年代外交정책전망」「變貌하는共産세계」「상호의존과 지역협력」「新國際질서속의 한국」, 2부에서는「새로운 세계질서의 모색」「共産圈과 국제정치」「일본의 外交軍事정책」「資源과 국제갈등」등각각 4개主題로 主題발표와 토론을 벌이고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특히 80년대危機論이 나돌고있는 시점에서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主題발표중 주요논문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註】

한국安保는 亞洲서美·蘇관계발전의 變數

美蘇관계의 展望 로버트·팔츠그라프 (美터프츠大 교수)

다음 몇가지 이슈는 80년대의 美蘇관계에 대단히 큰영향을 줄것이다.

첫째, 새로이 나타나게된 전략적, 軍事的 상황은 80년대의 美蘇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다. 더구나 리비아라든가 쿠바와같은 代理세력을 동원하여 소련은 세계각처에까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있게 되었다는점이 80년대의 美蘇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이다.

둘째, 소련과 미국이 데탕트에 대하여 相異한 견해를 보이고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략적인 균형을 바탕으로하는 데탕트정책을 추구하는 댓가로 제3세계에서의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소련은 이와같은 연계관계를 부정하고, 기회있을때마다 SALT I을 이용하여 소련의 전략적 지위강화를 추구했다. 이같이 데탕트에대한 상이한 견해는 앞으로의 美蘇관계에 깊은 영향을 줄것이다.

세째, 80년대의 美蘇관계는, 제3세계와 美蘇양국의 同盟國문제가 중요한이슈로 등장하게 될것이다. 특히 제3세계문제에 관한 미국과 西歐동맹국과의 심각한 견해차이는, 소련으로하여금 미국과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西歐諸國에대한 개별적인 宥和정책을 취할수 있게 했다.

네째, 80년대의 美蘇관계에서 NATO의 近代化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것이다.

다섯째, 소련과 폴란드의 관계는 80년대의 美蘇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소련이 폴란드사태에 武力개입을 하게되면 유럽내에서 NATO의 근대화와 핵무장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련은 폴란드사태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때문에 폴란드사태발전에 따라서 소련의 개입가능성을 완전히 배려할수는 없다.

여섯째, 中東과 페르시아灣지역의문제 第3세계에 있어서 자원확보를 둘러싼 美蘇의 對立은 80년대의 美蘇관계에 중대한 영향을줄것이다.

끝으로, 아시아에 있어서 美蘇관계는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강화에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中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일본으로하여금 방위력을 증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美國과의 見解差異로 그역할을다하고 있지못하기때문에미국과한국의安保관계는이지역에서美蘇관계의발전에중대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兩國의工業化推進정책은 經濟成長에효과

韓·中共 경제성장 戰略의비교 朴熊緖 (國際경제연구원)

한국과 中共의 경제구조는 너무 관이하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까지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였다는 사실, 또는 東洋的 儒敎사상과 농업중심의 생산체제에서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인구密度가 높고 耕作 면적이 낮은 貧困의 악순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로 놓고보아 思想의 體制나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구별 이외에도 韓·中共간에는 많은 유사성이 存在하며, 따라서 경제발전전략의 차이는 좋은 비교분석의 대상이 될수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한국과 中共은 다같이 工業化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농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하고 공업 특히 輕工業및 重工業에 크게 투자를 추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된다.

兩國 모두 적게는 GNP의20餘%많이는 GNP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國內資本 형성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그중의 대부분이 공업 섹터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볼때 全期間에 있어서 약 연평균 3%정도의 차이를내며(全期間이란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中共과 1960년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을 의미함) 특히 全比較기간을 통해 中共의 성장률은 많은 기복을 나타내는데반해 한국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수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이 中共과는달리 對外시장을 목표로 하여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을 꾀했다는점, 또 재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資源의조달을 국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에서 많이 조달했다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소비가 中共처럼 극도로 제한되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등에 힘입어 괄목적인 對外지향적 한국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과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하게하고 높은 인플레도 동시에 가져왔던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경우에는 높은 경제성장은 달성했으나 방대한 인구와 人口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생활수준자체는 크게 높지않고 현재 한국의 5분의1내지 6분의1에 해당하는 낮은 생활수준을 달성한 것으로보이며 그 대신 높은 경제성장의 저력은 가지고있고 인플레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수속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의 부분적인 비교는 상당히 방대한연구와 더 포괄적인 전략적 차이의 추적이 필요하다.

日은經濟力에相應하는 政治力도배양해야

日本의 戰後外交政策 모색 萩原宣之 (東京아시아經濟研究所)

80년대에 들어와 日本내에서는 일본의 기본외교정책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레이건 美 대통령의 日本의 방위력증강요구는 日本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平和憲法과 소위「綜合安保」(Integrated Security)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같은 논쟁은 戰後 일본의 외교가 國防문제에 있어서는 美日安保條約에 의존하면서 주로 경제외교에 집중해 왔던 사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출발되었다.

사실 戰後 日本외교정책의 基調는 미국의 군사력과 冷戰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보호와 후원을 통하여 經濟大國으로 성장하려는 것이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戰後 日本외교정책은 美日安保條約과 美國의 군사력의 보호하에서 日本의 경제발전을 주요목표로삼았고,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는▲多數의 국가와 다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세계의 각국과 경제유대를 강화하는것 ▲원료공급원을 확보하고 일본상품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집약될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소련과 中共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하고 美蘇의 대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와같은 日本외교정책의 基調는 戰前의 軍國主義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기본적으로 日本과 아시아의 이익과 부합되며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日本은 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방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만일 日本이 綜合國防論을 고집하고 美日安保條約에 의존하여 경제중심의교정책을 추구하려면 미국의 양해를 얻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日本이 美日安保條約下에서 국방력을 증대시키고, 日本의 군사력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용하게될 경우 日本내에서는 憲法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아시아제국의 경계심을 고조시킬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역할은 아시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확보에 있으며 日本의 平和憲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日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같이 軍事大國으로 變身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것이다.

毛死後 실용주의로轉換…東西兩陣營論 부인

毛澤東이후 中共외교정책 俞松燃 (홍콩中文大교수)

1976년과 1981년의 과도기에 中共외교정책은 毛澤東의「혁명외교노선」에서 實用主義派의「現代化 외교노선」으로 전환했다.

中蘇분쟁이후 毛澤東은 自力更生의외교정책을 주장하고 독자적인 核무장과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美蘇 초강대국을「종이호랑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覇權主義를 공격했으며 제3세계에서의「人民戰爭論」을 주장했다.

中共은 제3세계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美蘇양국을 모두 견제하는 연합전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中共은 제3세계와 공통점을 가지지도 못했으며 또한 美蘇와 경쟁할수있는 국력도 갖추지못했다. 實用主義派들은 이와같은 中共의현실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毛澤東의世界3分論을 재평가했다. 實用主義派의 이와같은「現代化 외교노선」의 목표는 중공의 현대화 달성을 위한 국제정치환경의 안정과 中共의 국가안보를 위한 反覇權主義라는 두가지로 집약된다. 이와같은 목표에 따라서 中共은 美蘇관계를 재정립하였고 일본과 ASEAN국가, 인도네시아및 臺灣문제등에 관한 외교정책을 조정했다. 한반도문제에 대하여는 中共의 입장은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과의▲제반 조약과 양국 지도층의 빈번한 교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과 美日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두개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중공은 조심스럽게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같고, 양국의 비공식적인 접촉과 교류가 이미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 中共과 韓國의 관계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中共은 反帝, 反植民主義정책으로부터 反覇權主義를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서 현실정치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외교정책을 정비했다. 反蘇연합전선에 美日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은 東西간의 양대진영론을 부정하였고, 또한 4개現代化를 위하여 제3세계보다 西歐선진국가와의 교류를 더욱 중요시한다. 아세안권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가의 외교관계에 우선을두며 아세안국가에서 親共系세력에 대한 지지를 自制하고 있다.

나의 이력서

〈證言 尹致暎〉 윤치영 ㊳

雙十節 경축특사

中華民國 창건45周…5議員과 臺灣에

觀兵式에 경탄、總統夫妻와 政談나눠

56년들어 金昌龍중장 被殺사건, 3代正副統領선거, 張勉부통령 被擊사건등으로 政局은 줄곧 긴장속에 어수선했다. 그해 10월초순, 나는 뜻밖에 中華民國 雙十節사절단으로 갈기회를 얻었다. 그해 蔣介石총통은 建國4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우리 정부에도 친선사절단을 보내줄것을 요청해왔다.

나는 험악한 정치風波의 시름도 잠시 잊을겸 처음 가보는 中國을 알수있는 좋은 기회라고생각했다. 일행은 自由黨의 朴永出, 金智泰, 鄭基元의원등 6명이었다.

우리가 臺北공항에 도착하자 조지·葉外交部長(외무장관), 沈昌煥차장등 행정부및人과 立法院(국회)대표들이 나와 대대적인 환영을했다. 중화민국(나는 꼭 그렇게 부른다)은 지금에와서는 국제적으로 좀 외로운형세이나 당시엔 외교적으로 大國의 역할을했다.

그들이 안내해준 호텔特室에 도착하니 방마다 南國의 갖가지 과일들이 풍성히 쌓였고 꽃향내가 방안에 가득해 흐뭇한 기분이었다. 처음 맛본 독특한 향내였다. 과일들은 行政院長(총리), 立法院長(국회의장), 외교부장, 국방부장등이 특히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방문첫날 우리는 蔣介石총통이 마련한 만찬에 초대돼 蔣총통과 1시간가까이 政談을 나눴다. 蔣총통은 먼저 李承晩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는 그가 보는 국제정세를 설파해나갔다. 외교와 국제법을 전공한 나로서도 그의 해박한 식견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 本土에서 臺灣으로 오게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할때는 눈빛을 번득이며 무척 진지한 표정이었다.

蔣총통은 또『오랜 戰亂중에 고생이 오죽했겠느냐』며 우릴 위로하고는『고난끝에 福樂이 올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蔣총통에게『中國의 王대표가 유엔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東亞를 둘러싼 列強의 형세, 미국의 東亞및 太平洋정책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蔣총통의 부인 宋美齡여사하고는 동양의 文物, 한국의 氏族譜에서부터 부부생활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대화를 했다.

宋여사가 나의 가정에 관해 묻길래『우리집에선 내妻가 王이다. 무조건 내가 복종한다』고 말했더니 宋여사는 재미있다는 듯 폭소를 터뜨리며『헨팩 허스밴드(Hand Pack Husband)?』하며 말을 받았다. 宋여사가 또『가족사진 없느냐』고 하기에 마침 가지고있던 가족사진을 보였더니『뷰티풀! 당신부인 아름답고 우아하고 덕성있게 보인다』며 한없이 칭찬을했다. 그러고는 그 사진을 蔣총통에게 보여줬다. 난 생각도 못한 칭찬에 면구스러워 얼굴이 화끈화끈했다.

蔣총통내외는 내가 크리스천인걸 알고는 주일날 蔣총통이 세운 士林교회로 안내, 같이 예배를 보기도 했다.

우리는 방문기간중 각처를 예방하고 산업시찰도하고 中軍의 교련도 관람했다.

雙十節의 大觀兵式은 실로 장엄했다. 그軍勢가 당장이라도 대륙으로 향할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육군기지에서「實戰훈련」도 보았고 基隆의 해군기지에선 함포사격의 위력을구경했다. 臺灣에서의 여러모습을보고 일면 우리나라의 정치부패상, 혼란상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 통탄스러웠다.

우리는 또 특별기로 金門島로 안내받아 철통같은 警備를 둘러 보고 눈앞의 대륙을 겨누고 應射하는 함포사격을 목격했다. 당시 金門島의 사령관실에서 베푼 만찬회장에서 맡아본 배갈의향내는 술을입에못대는 나로서도 무척 황홀한기분이었다. 무척 많은 것을 보고 배운뒤 우리는 귀국길에 올랐다.

◇56년가을 雙十節기념식 참석차 自由中國을 방문했을때 蔣介石총통내외는 우리 一行을위해 官邸에서 晩餐을 베풀었다。左列앞에서부터 4번째가 蔣총통。右列2번째부터筆者, 宋美齡여사, 金弘壹駐中大使。

우리가 귀국할 때 동료인 朴永出의원이『홍콩에 있는 중국인이 주례로 청해 홍콩을 다녀와야 겠다』며 따로 떨어져 홍콩으로 갔다.

우리가 도중에 東京에 들러 帝國호텔에서 묵고있는데 朴의원이 나타났다. 그는 짐을 무척 많이 갖고 있었다.

朴永出은 날 보더니『짐이 너무 무거우니 트렁크하나만 맡아줄수 없느냐』며 부탁을 했다. 난 그 커다랗고 무겁게 보이는 짐이 뭔가 미심쩍어 거절을 했다.

그러고 귀국했는데 얼마뒤 밀수사건이 터졌다. 朴永出이 국제시계밀수사건에 걸려든 것이다. 난 그때 東京에서 朴의원의 부탁을 무심코 들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이 사건은 이름이 그때 세상에 시끄럽게 오르내렸다. 당시 국회 외교분과위원장인 朴의원은 중국인 마카리오·張과함께 8개의 트렁크를 갖고 공항에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불안으로 온갖 강력사건도 많던때에 터진 밀수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朴永出은 自由黨의 중진의원으로, 또 목사의 신분으로 그런일을 저질렀으니 어이없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사건이 朴에게 정치생명의 破滅을 가져온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고침 나의 이력서 ㊇회중「日本天皇위해…조선청년의 피를 흘리자」고 한 발언은 金相敦이 아니라 朱耀翰의「府民館 발언」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색깔있는 女子」 中國영화제 優秀賞

禾豊흥업(대표 鄭昌和)제작의 영화「색깔있는 女子」가 자유중국의 영화제黃金馬賞에서 우수영화로 선정되는 한편 제작사는 자유중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금마상제는 건국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큰 영화제다.

모눈종이 위의生 ⑬

趙善作 作　金光培 畫　<246>

『말도마쇼. 그때 왜 부산에서 돌아와서말요. 어디론가 감쪽같이 없어진거요. 그친구찾아내느라 엽둘도 더 헤맸을거요. 그런데 사라졌다는거요?』

『전 몰라요. 그분이 쓰신 작품을 촬영하고 계시니까 혹시 여기 계신가 했을뿐예요.』

『그 친구가 쓴 작품? 누가 그래요?』

『그냥요. 아녜요?』

『아니구말구. 그친군 안썼어요. 도망쳤다니까. 이전 작품으로 대체된거요. 덕분에 여러사람 멍들었지만.』

『멍들다뇨?』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고, 난 뭡니까? 어떻게 그친구한테 좀 쓰여 보려다가 육개월이나 놀았어요.』 좀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한 감독은 스태프들이 둘러 앉아 있는 쪽을 향해『명기야-』하고 소리쳤다. 명기라고 불린 블루진 차림의 앳된 청년이『네』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를 향해 뛰어왔다. 『코피 좀 가져와』하고 U감독이 말하자 그는 또 왔던 곳으로 달려갔다.

『그럼 그 작품은 못하게 된 건가요?』

『써와야 하지』 블루진의 청년이 보온병을 가져왔고, 그것을 받아든 U감독이 뚜껑에 코피를 반쯤 따라 내게 주었다.

『대접할 거라고는 이거뿐인데. 워낙 한심한 곳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코피를 받아들며 나는 생각했다. 그가 그것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부산여행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서울로 돌아와서는 왜 도망쳐 버렸을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낼수가 없었다. 코피를 한모금 마시고, 혹시 내가 그 여행에 동행했기 때문인가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열었다.

『못 쓰신 이유가 뭘까요? 시나리온데…… 더군다나 자신이 썼던 소설을 직접 각색하는 일이었다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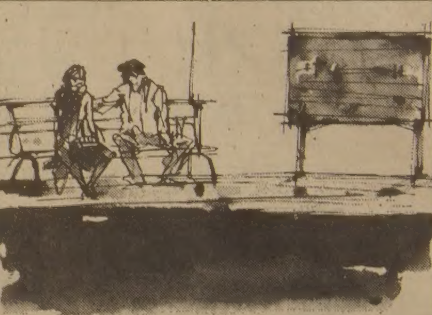
『그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요?』

『그렇지.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런데 왜 그랬죠?』

U감독은 힐끗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그런 시선은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있지 않느냐고 힐책하는 것처럼 내게 느껴졌다.

『슬럼프가 아닌가 싶어』라고 감독이 말했다. 『지난 가을이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디서 돈좀 얻어 쓰게해 주겠느냐는 거요. 소설가 왜 나한테와서 그런걸 요구하느냐니까 소설이 안써진다나…… 어딘가 산에들어가 한달쯤 끙끙댔지만 영 글이 써지지 않는다면서 말요. 마침 나도 작품하나가 끝나가던 때였고, 그 친구 단편중에〈칫솔〉이라는게있는데 난언젠가그걸꼭영화로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지만 그땐 내 말이 어떤 영화사에나 써가 먹힐 때니까 쉽게 원작 계약을 해주었지. 그런데 시나리오도 자기가 쓰겠다는 거요. 시나리오에 관한한 나도 그렇지만 영화사라는 데서는 으레 시나리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어하거든. 영화 메커니즘이라는 건 아무래도 좀 다른거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원하고, 나도 그 친구한테 혹시 직업적인 시나리스트들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프레시한 어떤 것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영화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등 무리를 했던거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요. 날 속 썩이는 게…』



流星의 賦 <227>

李炳注 作　李友範 畫

秋風何處至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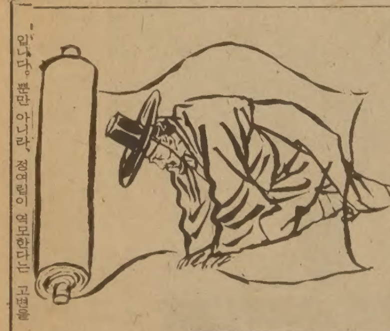
도대체 당시의 이른바 소(疏)란 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후학으로선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다. 당시 정치사정의 여실한 반영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생원 양천회(生員 梁千會)의 소를 발췌해본다.

『…신의 집은 호남(湖南)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역적의 정상을 소상하게 알고있읍니다. 정여립은 일찌기 학문하는 자들과 부동(附同)이 되었는데 이발, 이길(李佶), 백유함, 이이 발형제(李潑兄弟)와는 특히 절친했읍니다.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명망이 높았을 무렵, 이 여립은 그들을 존경하고 여립을 추천하여 그 문하에 출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이가 죽자 여립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이발등과 더불어 충현(忠賢)한 사람들을 모함할 계책을 하였읍니다. 이에 역적 여립이 그와같이 흉악범이된 이유를 찾아보면, 조정의 주요한 자리에있는 신하들과 서로 통하여, 여립의 몸은 비록 지방에 있으나 조정의 권세는 제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들수가있읍니다. 여립은 음모의 권세를 잡고있는 중신들을 충동하여 쇄신(刷新)하자는 의견을 내세워 나라안을 떠들썩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는 전관(銓官)에게 부탁하여 황해도사의 요직에 앉아 난을 일으키려 하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봉사신(奉使臣)에게 부탁하여 부윤과 판관들을 일시에 파면시킴으로써 지방관이 빈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그 술책에 빠져들어 그의 비위만 맞추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여립이 역모한다는 고변을 듣고도, 이를 탐색하기는커녕, 역적을 옹호하려고했읍니다. 심지어는 이이의 제자들이 무고(誣告)한 것이라고 하여 고변한 한준을 비난하기까지 했읍니다. 조정의 의논이 이러하니 의금부 도사 유담등은 죄인을 잡는데 힘쓰지 않았고 태학생(太學生)들가운데선 소를 올려 여립을 구하려는 자까지 나오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관 정언신(委官 鄭彦信)같은 자는 자기와 관련된 단서가 드러날까 겁내어 혹독한 매질만을 가하되 자세히 캐묻지도 않고 덮어버리려고 했읍니다. 역적과 같이 생사를 도모한 이발, 백유양, 그리고 종족간(宗族間)인 정언신, 정언지같은 자들은 지금도 경연에 출입하며 의기양양하고 있읍니다. 지금 역적의 문하생과 그 친구들은 가두었으나 조정에 있으면서 역적에 가담한 자들은 이를 방치하여 추궁하는 바가 없으니 이는 나라의법에 어긋나, 천한 자에게만 법이 시행되고, 귀하고 권세있는 자에겐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예를 조헌(趙憲)에게서 볼수가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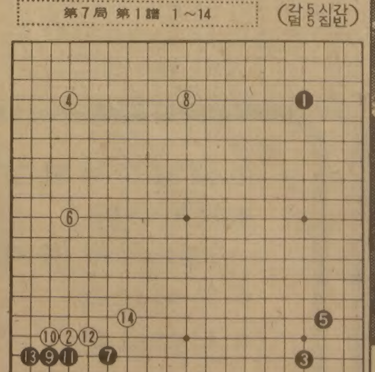
조헌은 여러번 소를 올려 권세있는 자들을 심각하게 비난하였는데도 그나라 사랑에서 나온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죄로몰아 먼곳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 역적무리들의 마음만 쾌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니, 빨리 조헌을 돌아오게 하소서』

선조는 이 상소를 읽은 『양천회의 상소가 너무나 늦었구나』하며 그것을 가상히 여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1譜 1～14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 〈2敗〉
黑(5段) 張秀英 〈2勝〉

姜哲民6단이 前局에이어 계속 등장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원래는 河燦錫7단대 張秀英5단의 바둑이 제6국으로 두어질 예정이었는데 河7단이 대국직전에 急患에 걸려 날짜를 대지못했고, 일단연기된 날에는 또 대국연기수속 차질이 생겨서 불가불 不戰敗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張秀英5단은 자연 不戰勝을 거두게되고, 이바둑을 제7국으로 두게되었는데 姜6단이 마침 손이 비어 본탐에 계속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不戰敗, 혹은 棄權敗는 이런 경우외에 소정대국시간에 1시간이상 늦었을때도 해당되며 지참을 하면 늦은시간의 곱, 즉 말해서 30분 늦었으면 60분을 소비한것으로 미터제해놓고 대국을 하게 되어있다.

이와같은 대국규정은 지극히 엄격하여서 때로 본의아닌 실태를 연출하는 일이 생긴다.

프로기사면 기원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여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팬들에게는 그한판이 아쉬울때가있고 더군다나 전체승률에도 미묘한영향을 미치게 되는만큼 기사로서 대국기일과 시간을 어기는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될것이다.

姜6段 能技의 3連勝

그것은 그렇고 姜6단은 계속되는「出戰」에도 싹싹하게 응해주고 여전히 즐거운낯으로 두어간다.

이리하여 능기인 白2, 4, 6의 3連星세력포석인데 張5단은 그白6을 의식하면서도 黑5로 귀굳힘을 하고 좌하귀를 黑7에서 9로 침입하여 귀를 도려냈다. 【一九】

싯벨트를 매십시오

「다음」이란 없을지 모릅니다.

두차가 시속 50km(30마일)로 정면충돌하면 차는 10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에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충돌시에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지만 저속력으로 가던차도 충돌하면 싯벨트를 매고있지 않은 운전사나 승객은 수천파운드의 힘으로 차 내부에부딪칩니다.

싯벨트를 매십시오.

엉덩이에 단단히 매고 어깨벨트는 가슴과 벨트사이에 1～2인치 여유가 있도록 맵니다.

특히 집 가까이를 오가는 짧은 드라이브때도 벨트를 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런짧은 드라이브때 일어 납니다.

싯벨트에관한 책자를 얻기위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Public and Safety Information Branch, 1201 Wilson Avenue, Downsview, Ontario M3M 1J8

싯벨트를 매느냐 여부는 사고때 제발로 걸어 나오느냐 아니면 들것에 실려 나오느냐의 차이 입니다.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Ontario
James Snow,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광고문의 구독신청 533-2361